인권정보자료실
CPk1.40.1

박종철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1)

박 종 철 ①

CROCKY BOOK
남광사
NAM KWANG CO.
미술용모조

인권정보자료실
CPk1.40.1

중앙 1988. 1. 12.

「朴鍾哲군 死因조작」 재수사

大檢서 착수 관련 警察수뇌들 소환방침

眞相폭로한 剖檢醫 黃迪駿박사 今明간 소환 사실여부확인키로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1월 姜致昌당시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최고간부들이 朴군의 사인을 고문치사아닌 쇼크사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13일 이들 경찰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朴處源당시 치안본부 5차장이 『李永昶치안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2월27일 수갑중인 고문경관 2명이 검찰측에 축소·조작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13일 밝힌 것을 중시, 이에대한 수사도 법이기로 했다。

한편 朴군의 사체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黃迪駿박사(42)는 12일 자신의 당시 일기를 공개, 姜致昌치안본부장과 5차장 朴處源치안감·2차장 劉吉鐘치안감·4차장 朱炳德치안감등이 부검다음날인 1월16일 하오 자신을 치안본부로 불러 『부검감정서에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해달라』고 집단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었다。 〈관계기사10、11面〉

검찰은 朴군부검의인 黃박사를 금명간 검찰청사로 소환, 문제의 일기장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범법사실이 드러날경우 모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한고위관계자는 『지난해 朴군사건의 범인축소조작수사때와 마찬가지로 모든것을 원천적으로 조사, 밝히는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러 조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않아 구체적인 소환대상자를 밝힐수는 없으나 1차로 黃박사를 불러 조사한뒤 그 결과를 놓고 소환대상자와 수사방향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소환여부에대해 『安변호사의 인터뷰내용은 이 사건자체를 움직일만한 가치는 없는것으로 판단돼 현재로서는 소환할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수사를 지난해 범인축소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도록했다。

"의혹없게 眞相규명을"

盧당선자 사실드러나면 관련자들 公薦안해

盧泰愚대통령당선자는 13일 朴鍾哲군 고문은폐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의혹을 안겨주는것 같으니 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民正黨은 이에따라 이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도록 鄭石謨사무총장이 丁海昌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民正黨은 朴군사건에 관련되어 공직에서 물러났던 徐東權前검찰총장·李海瓚前안기부제1차장·姜致昌·李永昶전치안본부장등이 공천신청을 한것과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해주지 않을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拷問경관 진술은 모두 각본이었다

동아 88.1.12

司祭團 폭로,성명 차라리 후련
지금도 다 못털어놔 안타까와

朴군사건 맡았던 주임검사 安商守변호사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安商守검사(42)는 사건후 「문책인사」를 당해 春川지검으로 전보된 뒤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신했다.

1년만에 처음으로 입을연 그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진실들을 많이 공개하면서 「고문행위는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감조했다.

—처음 수사에서 고문가담 경찰관이 3명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점은 명백한 수사잘못이 아닌가.

「1월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2일까지 3일 동안 永登浦교도소에서 연행시간, 전기고문여부, 유류폭, 고문과정을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해나가던중 23일오전에 「24일중으로 기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기소민기를 15일이나 낭겨놓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현장검증도 상부에서 「범행을 이미 자백했으니 변인없는 간단한 실황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며 현장검증대신 실황조사만 하라고 지시했다」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은 범인을 은폐조작할 시간적 여유를 준것이 아닌가.

「16일부터 참고인조사를 하는등 내사를 진행하다 17일 경찰자체수사로 결론이 났다. 물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검찰이 독자적기능을 충실히 행사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것을 알고나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安商守변호사

「超경위등이 실권변화를 일으켜 범행의 전모를 털어놓은직후 검찰수사팀은 수사계획서를 올렸지만 수사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春川경찰서 柱고문사건을 예로 들며 「진상을 갑주려다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키고 망신할 우려가 있다」고 점부조직내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기도가 시작됐다. 외부의 압력으로 검찰은 손발이 묶여버렸고 결국은 議政府교도소에 수감된 2명의 고문경찰관을 삭대로 회유와 협박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러한 경찰의 범인은폐기도가 무모한 것이기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것으로 믿었다」

—사제단에서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폭탄성명을 터뜨렸을때 검찰내부의 반응은…

「당시 은폐조작에 가담한 3명의 고문경찰을 수갑구속하기 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으므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에 대한 공판을 계속 미루어왔다. 현장조작과 금전적 배려를 통해 2명의 일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1, 2심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것은 또 법률 이전에 도덕과 양심의 문제이기도 했다. 경찰의 은폐작전에 동조할 경우 검찰과 사법부로서는 범인은닉과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길이 없지 않은가. 이런한 상황에서 솔직이 사제단성명이 나왔을때 백만원군을 얻은 심정이었다.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로서는 망신살이 뻗친 것이지만 2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을 무한정 미룰수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후련한 심정이었다」

—사제단성명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가.

「수사팀에서 한두도 늦추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수사계획서를 올려 수사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議政府교도소로 가 2명의 경찰관을 만나 조사를 벌였다. 그때는 경찰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이 먹혀들어가 삼태여서 그들도 3명의 동료경찰관을 끝이보지 않고 공판을 받는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것같았다. 나는 「사제단에서 이미 폭로해 더 이상 감출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며 6시간이나 설득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 자백을 근거로 5월20일저녁 3명의 고문경찰관을 추가로 연행, 다음날 구속하기에이르렀다」

—朴군사건후 유회인사를 당해 春川지검으로 갔던 사표를 냈는데…

「국민들의 비난여론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불이익 인사를 당할때 검찰의 부력감을 새삼 되씹었다. 당시 鄭銖永검사장이하 서울지검수사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공개할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옷을 벗고 나왔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능력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는다」

剖檢소견 밝히지말라 "협박"
의사良心에따라 日記공개

朴군 부검한 黃迪駿박사

고 朴鍾哲군사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 黃迪駿박사(42)가 朴군사망 1주기를맞아 당시 姜致昌치안본부장, 5차장 朴處源, 4차장朱炳德, 3차장李敬祚, 2차장劉吉鐘치안감, 인교부장安鳳相경감, 관(작고)등 당시 간부들이 朴군고문치사사건을 처음서부터 은폐조작하려했던 사실을 생생히 기록한 자신의 일기장을 공개한것은 「진실은 밝혀야한다」는 의사의 양심에따른 것이었다.

黃박사는 당시 자신에게 朴군이 「경찰(특별부분)압박에 의한 절신」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소견을 부검서에 밝히지 말도록 회유, 협박을했던 치안본부간부들의 언행과 당시 양심과 공무원신분 사이에서 겪은 자신의 갈등을 날날이 일기장에 기록해두었다.

그는 朴군1주기를맞아 한 기자에게 자신의일기장을 공개하면서 「당시 치안본부장과 간부들의 협박, 회유에도 불구, 끝내 정의편에서 사실대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함으로써 朴군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한다는 신념에서 朴군1주기를맞아 일기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집요한 조작회유협박을 공무원신분으로서 이겨내기가 어려웠을텐데…

「그 朴군 기자에게 당시 심적 압박으로 부쳐 괴로왔고 한때 협박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한밤중에 잠자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정의로운 아빠가 되겠다」고 최종적인 결심을 하게됐다」

—당시에 치안본부측으로부터 당한 조작강요와회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부검이 끝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설득과 강압의 연속이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한 보상의 암시를 받기도 했다. 그 조직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조직최고위 간부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강요를 거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동안 치안본부측 고위간부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의사로서 부검소견만 양심껏 밝혔으면 됐지 그이상은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애당초부터 조작하려했던 인물이 이 사건을 전혀 몰랐던것처럼 위장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기도 했었다」

—이사건의 진실을 털어놓는 현재의 심경은…

「후련하다. 그동안 진실이 땅에 묻히고 허위가 사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왔다.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만다는 사실이 이번일을 계기로 널리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鄭東昨기자▽

黃박사 日記

△1월15일 오후4시40분=李기찬경정으로부터 「치안본부장지시이니 사체부검팀 구성하라는 연락을 받음. 모두4명으로 부검팀을 구성, 오후6시20분경 치안본부에 도착, 바로 부부장방으로 갔다가 5차장 朴處源치안감실로 안내됨. 이때 朴치안감은 「朴군의 사체에 외상이 없고 3, 4회 육조에 당았으니 익사일것이라고 설명.

△밤8시반경=한양대 염안실에 변시체도착. 밤9시경 사체가 부검대에 올려지고 安商守검사, 한양대 朴東皓교수 朴군삼촌(朴月吉씨)만 참가한 가운데 부검시작.

△밤10시25분=부검팀내고 염안실 사무실에서 安검사에게 약40분간 외삼촌외와 사인에대해 「경찰압박에 의한 절신사」임을 배제할수 없다는 설명.

△밤11시반경=5차장 승용차로 치안본부에 도착, 본부장소접실에서 와이셔츠차림의 姜致昌본부장과 차장등 간부들을 만나 부검소견을 설명.

△16일 새벽2시=「아침에 일을 급한 본부장의 기자회견부터 착잡한심정으로 의 면서 대기하는동안 姜본부장 朴5차장 朱4차장 劉吉鐘 2차장이 나에게 「19일까지 갈점서를 「심장쇼크사」로 보고하라는 감요, 회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姜본부장이 「록육이나하라」며 한 가운데 부검시작.

△아침7시40분경=본부장 국과수간부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갈정서를 작성하라」고 결심.

△오후3시20분=본부장소 집무실과 5차장실을 왕래하면서 대기하는동안 姜본부장 朴5차장 朱4차장 劉吉鐘 2차장이 나에게 「19일까지 갈점서를 「심장쇼크사」로 보고하라는 감요, 회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姜본부장이 「록육이나하라」며 국과수간부에게 1백만원이는 본부를 건네줌. 인사하고 나오는데 姜본부장이 「당신은 혜는 잊지않겠다」고 말함.

△저녁7시20분=여의도모텔에서 록육을하고 귀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부지 못함.

△17일아침6시10분경=애들을 스케이트장에 데려다주면서 아내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갈정서를 작성하겠다」고 결심을 밝힘.

△오후5시경=현남을만나 조언을들은뒤 함께친구인 裵모검사를 만남. 裵검사는 「정치적 문제이니만큼 신중히 처리하라」고 말함. 들아오는 길에 현남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내생각이다」라고 조언해주며 격려.

△밤9시55분=국과수 간부의 연락을 받고 워커힐호텔 커피숍에 도착. 이 간부는 「3차장이 전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최종보고했다」고 전했으나 3차장 李敬祚 치안감은 「국과수에서 사인문제를 어느정도까지 묵인해 줄수 있는가. 록였다고 한다.

△밤10시10분경=국과수간부에게 위커힐로 연락이옴. 신길산업(특수사2팀)으로 부검의 조서를 받으라는 통보.

△18일새벽0시5분경=신길동 특수사2대에 도착.

△새벽4시=특수사2대 숙직평수사관에게 참고인진술을 통해 모든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음.

△밤9시=부검의 사인은 「경찰압박에 의한 절신」이라는 부검소견서를 작성, 서명.

△밤10시=부검팀 해산.

△아침7시=부검팀 귀가.

治安本部長등 경찰수뇌들 拷問致死 처음부터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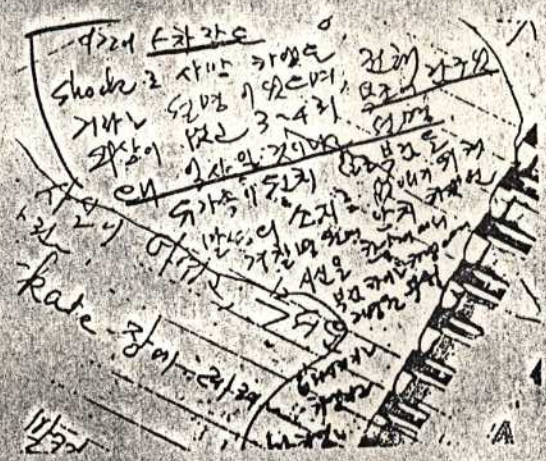
동아 88.1.12

朴鍾哲군 1주기 앞서 剖檢 黃迪駿박사·당시檢事 安商守씨 진상공개

"쇼크死로 하라" 압력 회유

며칠 번민하다 양심대로 眞實밝혀

黃박사 당시日記帳 처음공개



黃박사의 일기장 내용중 일부.

黃迪駿박사

온는14일로 1주기를 맞는 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은 사건발생 다음날밤 사체부검을 통해 朴군이 고문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이 당시 姜致昌 치안본부장과 치안본부의 차장급이상 고위간부들에게 정확히 보고됐으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쇼크死」로 은폐 조작하려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당시 이사건 담당 차장인 朴處源전치안감은 부하들이 朴군을 욕조에 여러차례담그는 방식의 물고문을 에 숨지게했음을알고 있었으면서도 부검의사에게 「쇼크사에의한 사망」소견을 써줄것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朴군 사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黃迪駿박사(42)가 당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기록해 두었던 일기장을 朴군의 1주기를 앞두고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黃박사의 일기를 종합분석한결과 朴군 사건은 당시 사체부검 참가의사중 유일한 법의학 전문의로 부검집도의이기도 했던 黃박사가 경찰 고위간부의 집요한 은폐조작 강요와 회유에 굴복하지않고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서 「경부(警部)압박치사」소견을 밝힘으로써 경찰의 은폐기도가 무너졌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朴군사건당시 서울지검의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42)는 13일 처음으로 朴군고문치사및 은폐조작사건의 경위를 공개하고 朴군 고문치사사건이 두번째로 은폐조작된 경위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을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빚어졌다고 증언했다.

安변호사는 東亞日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찰이 직접 수사하려고 했으나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초동수사를 경찰이 맡기기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고 증언했다.

黃박사증언및 일기내용

◇부검=일기장에 따르면 黃박사는 87년1월15일 오후 4시40분경 치안본부장 지시니 부검팀을 급히 구성, 치안본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부장실로 갔다가 당시 5차장 朴處源치안감의 방으로 안내됐다. 朴치안감은 黃박사에게 『숨진 학생이 쇼크로 사망하였을것으로 보이나 3,4회 욕조에 담갔으니 의사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는것. 黃박사는 이날 밤 9시부터 10시25분까지 한양대병원 영안실에서 사건 수사주임검사인 서울지검 安商守검사 지휘하에 한양대 朴종호교수 朴군삼촌 朴月吉씨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黃박사는 「부검결과 경부(警部)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安검사에게 분명히 설명했다는것.

◇조작회유=부검이 끝난 후 밤11시반경 朴치안감과함께 치안본부장실로갔을때 姜본부장이 와이셔츠 차림인채로 1~4차장들과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것.

黃박사가 朴군 사인에대한 소견을 말하자 간부들은 일단 다음날인 16일 아침에 있을 본부장 기자회견의 발표문에는 직접사인에대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특히 朴치안감은 朴군 사체의 모든 외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본부장 1차발표=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경찰간부들의 강요에 못이겨 1차 기자회견 발표문의 집도의사 부검소견을 △외표검사상 사인이 뭘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했고 △내경(內景)소견으로는 우측 폐장에서 출혈반소견이 인정되며 △사인은 병리조직 검사및 독물검사후 판정될것임」으로 하는데 등의하고 말았다고 黃박사는 일기에 기록.

◇조작회유의 반복=신문일 하부총일 黃박사는 본부장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소접실에서 외부와 차단된채 간부들로부터 사실의 은폐조작을 강요 당했다.

이날 오후 3시20분경에는 姜본부장과 5차장인 朴치안감 4차장朱炳德치안감 2차장 劉吉鍾치안감등이 합동으로 「19일까지 내게 되었는 부검 감정서에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해달라」는 강요와 회유를 하기도 했다는것.

다음날인 17일에도 정오경부터 오후4시20분까지 龍山의 「왕실」한식집 밀실에서 朴치안감, 당시 치안본부 인사교육부장이던 安商相경무관(작고)등이 黃박사에게 「박군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것.

◇고뇌속의 결단=일기장에는 黃박사가 당시 며칠간 밤새 잠을 못이루면서 타협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있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친구등 주위 사람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끝에 결국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따라 그는 17일밤 치안본부측에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통보, 18일 朴군이 고문치사한 것으로 최종 사체부검감정서를 작성했으며 이어 치안본부에서 19일 이사실을 공식발표했다는 것이다.

安商守변호사 증언

安변호사의증언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철저한 수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송치 4일만에 삼부에서 기소명령이 내려와 1월24일 기소만기를 15일이나 남겨 불온채 허겁지겁 사건수사를 종결하고 구속경찰관3명을 기소했다는것이다.

安변호사는 구속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가 구치소에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검찰수사팀을 면담하고난뒤 경찰은 議政府교도소에서 이들을 면회, 회유와 협박을 벌였으며 검찰은 외부압력으로 손발이 묶여 은폐축소조작사건의 수사에 착수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安씨는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4,5차례나 조사및 공소유지전략을 담은 수사계획서를 삼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고 증언했다.

安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천주교사제단 성명이 자칫 분할뻔했던 이사건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安씨는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朴군시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黃迪駿박사는 부검후 이틀동안 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감정서를 작성하라는 압력에 시달렸다면서 「黃박사는 용기있게 압력을 뿌리치고 진실된 감정서를 작성해 고문치사를 일응해주었다」고 밝혔다.

安씨는 그때 권력기관에서는 현사소송법상 수사주체인 검찰을 「수사의 보조자」또는 「법부참모」쯤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면서 「당시의 권력구조상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警察의 은폐 축소造作 알고도 넘겨

上部지시에 檢察 손발묶여

1988 1 13 한국

"朴군拷問致死" 警察수뇌 알고 있었다"

당시 剖檢醫증언 "쇼크死로 해달라" 수차례 압력받아

담당檢事도 "上部지시로 搜査제대로 못해"

檢察 진상조사 나서

검찰은 12일 朴鍾哲군 고문치상은폐조작과 관련, 朴군의 시체를 부검했던 黃迪駿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1과장)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安商守변호사(42·前서울지검형사2부검사)의 새로운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黃박사는 이날 속기소됐던 前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의에 姜致昌前치안본부장 등 당시 치안본부간부들이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밝혔고 安변호사는 검찰이 외부압력으로 은폐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할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해5월 은폐조작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검중앙수사부 수사팀으로하여금 당시수사기록,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적용법조문 등을 재검토, 진상조사를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치안본부 간부들이 朴군의 사인에 대해 허위 감정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黃박사의 일기장 사본을 입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黃박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黃迪駿박사

검찰의 한관계자는 "安변호사의 발언내용에는 재수사해야할 새로운사실이 없는것으로 드러났지만 黃박사의 발언 및 일기장내용은 더조사해진 위여부를 가릴필요가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축소조작사건에대해 재수사여부를 밝힐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黃박사의 일기장내용처럼 朴處源前5차장 외에 姜前본부장등 경찰고위 간부들이 허위 감정서 작성을 요구, 처음부터 은폐조작하려 한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朴前치안감과의 형평을위해 최소한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剖檢醫 일기장 公開

黃迪駿박사는 12일 당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기록해 두었던 일기장을 공개했다.

黃박사의 일기내용을 보면 당시 이사건 관련차장인 朴處源前치안감은 부하들이 朴군을 욕조에 여러차례 담그는 방식의 물고문으로 숨지게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黃박사에게 "쇼크사에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써줄것을 강요한것으로 나타났다.

黃박사는 일기에서 87년1월15일 하오4시40분께 "치안본부장지시니 치안본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5차장이던 朴치안감방으로 안내됐다. 朴치안감은 黃박사에게 "숨진학생이 쇼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3~4회 욕조에 담갔으니 의사일것"이라고 설명했다.

黃박사는 이날밤 漢陽大병원영안실에서 이사건수사검사인 安商守검사지휘하에 漢陽大 朴東皓교수, 朴군삼촌 朴月吉(37)씨등이 지켜보는가운데 부검을 한결과 "경부압박에의한 질식사"여서 이를 安검사에게 설명했다.

부검이 끝난뒤 朴치안감의 승용차로 치안본부장실에 도착, 1~4차장이 기다리고있어 부검 소견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 간부들은 16일 아침에 있을 본부장 기자회견의 발표문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부분은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하오에는 姜본부장과 朴차장등이 "19일까지 내게돼있는부검감정서에 사인을심장쇼크사로해달라"고 회유했으며다음날인17일하오에도 朴차장과 당시본부인사교육부장이던 安喜相경부관(작고)등이 "朴군이 질병으로 사망한것"으로 감정서를 작성해주도록 요구했다.

또 16일 하오에 姜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간부에게 1백만원을 건네주며 "당신은 혜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黃박사는 이날하오 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 일기에대해 "필요에는 간단한 메모정도만해왔으나 공개한일기장은사건수사가마무리되고 20일쯤지나 사건당시 3~4일간의 사실을 기록보존차원에서한꺼번에 정리한것"이라고 밝혔다.

黃박사는 또 "1월15일밤 부검을끝낸뒤 치안본부장실에갔을때 본부장을 비롯 5~6명이있었으며 한두명외에는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고말했다.

朴군 1주기 追悼法會 가족들 釜山 사리암서

【釜山】朴鍾哲군의 1주기를 맞아 13일상오10시 朴군의 명복을 비는 천도법회가 부산鈔下區槐亭3洞山15 사리암에서 수지 方道承스님의 집전으로 열린다.

조선 1983. 1. 13

朴鍾哲군 拷問致死 사실 警察수뇌 처음부터 알았다

剖檢한 黃迪駿박사 밝혀 "쇼크死로 해달라" 강요도

고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은 朴군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해 1월15일 실시된 사체부검을 통해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당시 姜致昌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들이 알고있었으나 사인을 조작하려했다는 사실이 12일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사체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 黃迪駿박사(42)가 朴군 사건과 관련,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장을 14일의 朴군사망1주기를 앞두고 이날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관련기사 10면〉

黃박사의 일기에따르면 특히 당시 姜치안본부장과 朴處源5차장을 비롯,치안본부 차장급등 고위간부들이 朴군의 사인이 「쇼크사」인 것으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黃박사는 작년 1월16일 치안본부측이 1차발표를 통해 朴군의 사인을 조작발표한두에도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뜻을 굽히지않아 치안본부는 결국 1월19일 2차발표를 통해 고문에 의한 사망(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朴군의 사체부검은 朴군사망 다음날인 1월15일오후9시5분부터 10시25분까지 한양대병원영안실에서 서울지검 安商守검사의 지휘아래 실시됐으며, 부검후 黃박사는 安검사에게 『사인은 경부압박에의한 질식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는것.

이어 黃박사는 대기중인 朴處源 당시 치안본부5차장과 함께 치안본부에 들어가 기다리던 姜본부장과 金又鉉차장(현 4차장) 劉吉鐘2차장(퇴직) 李敬作 3차장 朱炳德 4차장(현 해경대장) 尹重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등에게 사인을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치안본부간부들은 16일 오전에 있을 기자회견에 대비, 『우선 급한 불을 끄자』고 의견을 모았고, 특히 朴5차장은 『모든 외상은 없었던걸로 하자』고 설득했으며 朱炳德4차장도 검찰과는 이미 협조가 됐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16일오전 기자회견에서 姜본부장은 朴군 사인에 대해 「▲외표검사상 사인이 월만한 특이소견을 보지못했고 ▲우측폐장에서 출혈반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밝힐수 없다」고 설명했다.

◇黃迪駿박사

한편 치안본부 5차장등 검찰과 합동조직검사팀 특별검사 후 작성된 부검소견을 발표하게 됐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姜본부장은 치안본부에서 尹소장과 黃박사에게 『당신 은혜는 잊지않겠다』며, 1백만원이든 봉투를 주었다고 黃박사는 일기장에 적었다.

고문致死 축소 조작도 李永昶씨등 미리알아

한편 고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사후 축소은폐조작 사실은 작년2월말 이미 李永昶당시치안본부장과 朴處源치안본부5차장등 검찰과 위간부들이 알고있었다는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축소은폐조작사건과 관련, 작년5월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작년9월 석방된 朴치안감은 이날 『지난 2월27일 李永昶본부장으로부터 이미 열흘쯤 趙漢慶경우와 姜鎭圭검사가 심경변화를 일으켜 구치소에서 암실선언을하고 축소조작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경우확인을 위해 이들을 만났었다는고 말했다.

조선 1983. 1. 13

외부 압력받아 독자搜査 못해"

전담당檢事 밝혀

朴군사건 당시 주임검사(서울지검 형사2분)로있다가 사고후 춘천지검으로전보된뒤 사표를 낸 安商守변호사(42)는 12일 이사건이 축소조작된것은 검찰이 외부압력으로 독자적인 수사기능을 행사할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安변호사는 『朴군사건에대한 2차수사가 시작되기 3개월전인 지난해 2월27일밤 趙漢慶경위등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고문경관이 3명 더 있다」고 증언한뒤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4~5차례나 이어진 조사및 공소유지전담을 달은 수사계획서를 작성, 상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외부기관에서 검찰상층부를 움직일선 수사팀의손발도 자연히 묶일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

安변호사는 외부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으나 『당시 검찰은 3명의 고문경관을 추가구속하기 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趙경위등에 대한 공판을 계속 미루어왔다』고 말했다.

安변호사는 또 『1월20일경 검찰로부터 趙경위등의 신병과함께 사건을 송치받아영등포구치소에서고문과 절등에대한 조사를하던중 갑자기23일 오전 상부로부터 24일중으로 기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며 『기소만기를 15일이나 남겨놓고 수사를 종결토록 한 것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때문이었다』고 밝혔다.

檢察 경찰수뇌 再搜査착수

동아 88.5.11.금

朴군 拷問致死사건 黃박사 소환 日記내용 조사

死因은폐 회유강요행위 治安本部長등 처벌대상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치안본부잡등 경찰수뇌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駿박사의 일기장공개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중앙수사부는 13일 黃박사를 급명간 참고인으로 소환, 우선 일기장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공개수사를 통해 朴군고문치사사건중 아직도 의혹이 남은 부분에대해 진상을 밝히기로했다.

在野법조계 "檢察도 職務유기 조사해야"

재야법조인들은 특히 당시 경찰수뇌중 한사람이 黃박사에게 『서울지검장안부에는 이야기가 돼있다』라고 말한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金日秀교수(법학)는 『경찰수뇌들이 黃박사에게 진실사를 쇼크사로 은폐해줄것을 회유, 강요했다면 형법 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趙英來변호사는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려했던당시 경찰수뇌들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은폐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黃迪駿박사 사표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경찰수뇌들이 처음부터 사인을 조작하려했던 사실들을 기록한 일기장을 공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 黃迪駿박사가 12일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黃박사는 『외부로부터 여떠한 압력도 받은바 없으나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만 밝혔다.

朴前치안감등 3명 辭表제출않고 抗訴

월급50% 계속받아

고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범인은닉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과 당시 대공수사2단5과장 劉井邦경정 5과2계장 朴元瀛경정등 3명은 현재 직위해제상태여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있다.

이들은 혐의사실이 인정돼 검찰에의해 기소된 지난6월 2일자로 직위해제됐으나 1심에 유죄판결이 내려진후에도 무죄주장을 펴면서 2심에 항소,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검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위해제기간중의 월급기준에 따라 월급의 50%를 받고있다.

朴전치안감은 지난해 9월 21일 1심재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劉 朴경정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받은 직후 모두 항소, 현재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黃박사의 일기장내용이 사실로 확인될경우 黃박사에게 朴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해줄것을 회유 또는 강요한 姜致昌전치안본부장 등 경찰수뇌들도 소환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黃박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조사대상범위와 수사방향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金璽會대검중수부장은 이날오전 이번사건에 대해 『지난해 범인축소은폐조작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원칙대로조사해 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뒤 『일기장을 입수, 검토한뒤 黃박사에 대한 소환시기등을 결정하겠다』고 수사착수방침을 밝혔다.

金부장검사는 또 『현재로서는 일기장내용의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단계이기때문에 경찰수뇌들이 어떤 실정법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는 알수없다』며 『그러나 공개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金부장검사는 그러나 당시 수사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측이 『사인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고문치사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했기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견해를 밝힌데 대해 『경찰수뇌들이 부검사에게 쇼크사로 사인을 은폐해줄것을 회유하거나 감요한 사실자체만으로도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타인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高位職관련 眞實규명하라

盧대통령 당선자

盧泰愚대통령당선자는 13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당시 유력한 사건증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黃迪駿박사와 당시 담당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따라 정부당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盧당선자는 이날오전 鄭石謨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뜻을 丁海昌법무부장관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盧당선자가 진실이 밝혀질경우 취할 구체적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고 李敏寧대변인은 밝혔다.

民主黨도 聲明발표

民主黨은 13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盧泰愚相의 원을 단장으로하는 「朴鍾哲군사건재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에 나섰다.

金東主 文正秀 金正吉 李健一의원과 黨인권옹호위원인 金鎭佑 朴正圭 張石和 李仁濟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사건당시의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활동을 벌인뒤 빠른시일안에 조사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와관련, 金泰龍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검찰은 당시 치안본부장인 姜致昌씨등 치안본부관계자를 즉각 구속하고 당시의 대책회의참석자를 일건수사해야한것』이라고 주장했다.

平民 金종재 聲明

平民黨의 金大中총재는 고 朴鍾哲군의 고문치사사건은 폐조작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은폐조작과 관련된 당시 치안본부장이하 모든 경찰관계자및 검찰수뇌를 구속수사하고 사건의 은폐경위를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金총재는 이날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朴군의 고문치사사건을 당시 치안본부장이하 고위경찰간부들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쇼크死」로 은폐조작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며 이 정권자체를 고문살해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고말했다.

共和黨도 聲明발표

共和黨의 趙윤直대변인은 12일 故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진상을 정부고위간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새롭게 보도된데 대해 성명을 발표, 『당시 치안본부장을 포함한 정부고위관계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쇼크死」로 은폐조작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警察수뇌가 死因조작 회유"

중앙 1988 1. 13

당시 剖檢醫 폭로하고 辭表, 朴군사건 새局面에

"봉투주며 恩惠안잊겠다 말해"

"公正수사건의 압력으로 묵살"

黃迪駿씨

安商守씨

黃迪駿씨

安商守씨

朴鍾哲군 사체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일기공개로 사건직후 사인 은폐·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폭로된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 당시 경찰 수뇌부는 한결같이 黃박사의 일기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姜전본부장은 雪嶽山여행에서 돌아와 13일 아침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왜 이제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검찰수사에서 다 밝혀졌으며 黃박사의 증언은 틀린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또 朴處源치안감도 『黃박사에게 부검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치안본부 수뇌부는 姜玟昌치안본부장·金又鉉1차장·劉吉鍾2차장·李敬祚3차장·朱炳德4차장·朴處源5차장이었으며 1월20일 姜본부장사임후 李永昶 당시서울시경국장이 21일 후임 본부장으로 부임했었다.

당시 수뇌부중 姜玟昌·李永昶본부장과 劉吉鍾2차장은 퇴임, 현재 民正黨지역구 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 각각 慶北安東·淸道、全南麗川에 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朱炳德4차장은 해경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관련자들의 증언을 모아본다.

◇黃迪駿박사=당시 치안본부장과 간부들이 朴군사망원인을 호도하기위한 회유와 강요를 해왔으나 끝은 고민끝에 정의편에서 사실대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했다.

본부장은 부검을 마친 1월15일하오 결과보고를 받아 고문에의한 경부압박질식사란 사인을 알고 조작하려한 것이다.

당시 회유는 姜玟昌본부장·朴處源5차장·朱炳德4차장·劉吉鍾2차장등이했다.

姜본부장은 이때 『묵묵이나 하라』면서 과학수사연구소팀에게 1백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으며 나에게는 『당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상당한 보상의 암시를 받기도 해 조직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무척 괴로왔고 한때 타협쪽으로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다.

당시의 일기는, 사건의중대성을 깨닫고 1월20일께 돼서 15일부터의 일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다.

◇安商守변호사=지난해1월20일 사건을 송치받아수사하던중 3일만에 「24일중 기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장검증을 생략하고실황조사로 대체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받았는데 이러한 외부압력 때문에 고문경관 3명이 더 있다는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이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정부가 전복된다는 의견까지 내세우며 공정수사를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검찰은 구속된 경관2명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2월28일 수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가담경관 연행시기·수사방향·공소유지방안등을 작성해 상부에 올렸으나 역시 외부압력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사건 초동수사를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맡도록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건조작의 시간적 여유를 준셈이된 것이다.

◇金勝勳심부=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본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당시 성명(87년 5월18일 발표)을 통해 경찰고위층과 경찰밖의 고위층이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었다.

그래서 재판의 진행과정에 기대를 걸고 여의주시했으나 실망했다.

사법부와 경찰이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 경찰상위기관이었던 국무총리와 안기부장등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물러나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다.

신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사제단에 은폐·조작진상을 제보한 사람은 대통령직선제가 실현되는등 외형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볼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

은폐강요는 있을수 없는일

姜玟昌씨

거짓 剖檢소견서 부탁안해

朴處源씨

姜玟昌씨

朴處源씨

◇姜玟昌씨(전치안본부장) 등 후속조치를 깨끗하게 했다=부검을 하지않겠다는 朴군 가족을 설득, 제3의 공정한 병원에서 부검을 하는 것이 쇼크死로 보고받아 진상을 몰랐으나 부검결과가 나온뒤부터는 자체수사를 시켜 구속시키는등 구체적인 모든 조치를 하고 물러나왔다.

당시 黃迪駿박사를 내가 직접 만난 일은 없으며 부검결과를 설명하러 와 본부잠부속실등에서 간부들과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폐강요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목숨값으로 과학수사연구소 간부에게 돈을 준것은 고생한 부하들에게 하는 의례적인 일로 액수도 1백만원에 훨씬 못미쳤다고 생각된다.

「당신 은혜는 잊지않겠다」는 말은 절대로 한 일이 없다.

◇朴處源씨(전5차장)=당시 부검현장에 과학수사연구소 의사 4명, 漢陽대병원의사 1명, 담당검사, 가족이 입회했고 입회한 사진촬영까지 하지않았는가. 또 黃박사 본인이 치안본부특수대의 조사과정에서 사인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차장들은 「큰일났다」 「방법이 없겠느냐」며 걱정했을 뿐 은폐시도는없었다. 국민희생도아니고 경찰수뇌부가 그럴수 있는가. 또 부검도 내가 나서서 주장한 것이다.

부검직전인 15일하오 姜玟昌본부장이 사인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날밤 부검결과 경부압박질식사로 나와 姜본부장이 당황한 것만은사실이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부검결과를 설명해주기위해 내가 黃박사를 본부장에게 「안내」했을 뿐이다. 당시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朴군사건발생직후와 은폐사건 발생직후등 두차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또 아직재판도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다. 2, 3심에서도 사실대로만 말하겠다.

◇李永昶씨(전치안본부장)=사건발생당시 서울시경국장으로 급박한 시국상황에 매달려 사건을 미리 알수 없었다.

사건 책임을 지고 姜玟昌본부장이 물러난뒤 후임치안본부장으로 갔을때(1월21일)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었으며 朴處源치안본부5차장에게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朴鍾哲군 사건을 앗긴은 서울시경국장 재직시 신문·방송보도를 통해 알았을뿐이다. 안동같은 사건을 되씹기조차 싫다.

한편 故朴鍾哲군 사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迪駿박사(42)는 12일하오 朴군고문치사 사실은 당시 검찰수뇌부에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尹重鎭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黃박사는 『진실이 진실대로 밝혀져야한다는 판단에서 당시의 상황을 밝혔지만 이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데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기위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外部압력에 檢察수사 손발묶여"

사건당시 담당檢事 安商守씨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당시 수사를 맡았던 安商守변호사

1988 1.13

朴군 부검 黃迪駿박사 日記

한국 "司祭團성명 나오자 오히려 후련"

◇安商守변호사

(42·前서울지검형사2부검사)는 범인은폐조작사건이 터진 후 「문책인사」를 당해 春川 지검으로 전보된후 사표를 냈다. 安변호사는 지난해 1월15일 朴군을 부검할때 대공수사단 경찰관 10여명을 모두내보내고 검찰의 독자적 초동수사를 실시, 고문치사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수사를 할수없었다고 밝혔다.

安변호사는 『고문행위는 영원히 추방돼야한다』면서 『외부압력에 의해 헌법상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이 영향을받는 일은 6공화국에서는 없어져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문경관이 3명 더 있는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잘못 아닌가.

▲1월20일 趙漢慶경위등2명을 송치받았을때 4일만에 기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한창 수사진행중에 내려진 총결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관계기관대책회의결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초동수사가 경찰에넘겨져 축소조작이 가능했던것 아닌가.

▲당시 권력구조상 검찰이 독자적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검찰은 5개기관의 대책회의석상에서 1표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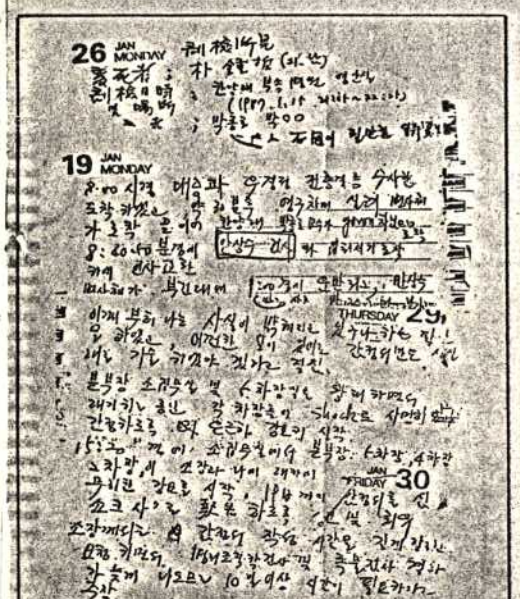
—고문경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 수사하지않은 이유는.

▲2월27일 그 얘기를 듣고 검찰수사팀은 석달동안 끙끙앓았다.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지만 수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갔줬다가 나중에 터지면 검찰이 무너진다』는게 검찰의 여론이었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손발이 묶였다.

—천주교사제단의 폭탄성명 후 검찰내부의 반응은.

▲검찰의 은폐작전에 검찰이 동조할 경우 직무유기의책임을 면키 어려웠다. 사제단성명이 나왔을때 백만원군을 얻은것처럼 오히려 후련했다.

◇1월15일 ▲하오4시40분께 李기찬경정으로부터 본부장지시라며 부검팀을 구성하라는 요청을받고 4명으로 팀구성. ▲하오6시20분 치안본부도착후 바로 본부장실로 갔으나 朴處源5차장방으로 안내됨. 朴처안감은 이때 『朴군의 사체에 외상이없고 3、4회 욕조에 담갔으니 익사일 것』이라고 설명. ▲하오7시30분 漢陽大병원영안실도착. 1시간30분 가량 기다리니 사체가 영구차에 실려도착. ▲하오9시께부터 安商守검사 漢陽大 朴東皓교수 朴군삼촌 月吉씨만 참가한 가운데 부검시작. ▲하오10시25분께 부검완료후 安검사와 40여분간 소견을 교환하면서 외상부위및 사인에 대해 『검토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배제할수 없다』고 말함. ▲하오11시30분 본부장실 도착. 姜본부장은 Y셔츠차림이었으며 1、4차잠도 소집부실에 있었음. 여기서 부검소견설명. ◇16일 ▲0시 朴5차장과 모든외상 삭제토록 요구. 朱4차장도 검찰쪽은 걱정말라고 설득했으며 그외 차장들도 모두 없었던것으로 하자는 의견 개진. ▲상오 2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대해 간부들은 『아침에 있을 담한불보부장의 기자회견)부터 끄자』며 설득. 찬잡한 심정으로 「外表검사상 사인이 뭘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못함」「右肺下葉下面에서 출혈반소견을 봄」으로 발표용 부검소견작성에 동의. ▲상오7시40분 본부장에게 가습부위와 목부위의 압박에의한 피하출혈사진들제외한사진13장을보여줌. ▲하오2시 신문에 부검입회한 朴교수、朴군삼촌의 목격담이 비교적 상세하나와 어떠한 삼정서만은 사실대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심. ▲하오 3시20분 본부장 소집부실에서 姜본부장、朴5차장、朱4차장、鄭2차장이 「심장쇼크사」로 감정서를 작성토록 강요및회유. ▲하오6시30분 본부장이 『목욕이나하란』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간부들 통해 1백만원이든 봉투를 전달. 이자리에서 姜본부장은 『당신은헤는의지않겠다』고 말함. ◇17일 ▲상오6시10분 아이 汝矣島모호텔에서목욕후귀가. 들을 스케이트장에 태워다주면서 가족에게 『점의편에서 감정서 작성하겠다』고 밝힘. ▲상오9시20분 서울大 李肺下葉下面에서 출혈반소견을 설명하자 『타협할수밖에없는상황』『정의의 편에 서도록…』이라고 말함. 현직과도 만나 조언을 구하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내생각이다』라고 격려. ▲낮12시20분 安喜相 경무관、朴5차장과 시사하며 의견개진. 安경무관은 모든 외상은 없는것으로하고 질병사망으로 감정서작성토록 강요. ▲하오9시55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간부의 연락을 받고 워커힐호텔 칵테일숍에 도착. 이 간부는 『李3차장에게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최종보고했으나 3차장은 사인문제를 어느정도까지 묵인해 줄수있는가고 물었다는고 전함. ▲하오10시10분 新吉산업(특수수사2대)으로 부검조서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받음. ◇18일 ▲0시5분 특수수사2대 도착. ▲상오4시 金기평수사관에게 참고인진술 작성에서 安검사등에게 폐에 뺀긴 출혈반에 대해 설명.



◇黃박사의 일기장 내용일부.

조선 1988. 1. 13

「폭탄」에 해체 하자 「혀야」·「제비」

朴鍾哲군 부검한 黃珉駿박사 日記

「고문의 흔적 없다」 말하자 "알았다고 하라"

「목격자 있어도 거짓말 말라」

▶8월 ○일=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부검을 마쳤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9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10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11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12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1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2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3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4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5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6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7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8월 ○일=오전 10시 부검을 마치고 오후 2시 부검을 시작하였다. 오늘 부검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폭탄」의 해체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검찰 측은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는 「폭탄 해체 시 폭발 위험은 없고 증거물 훼손 우려는 있다」고 해체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늘 부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10시 30분 부검을 마쳤다.

동아 1988.1.13

경찰간부 再搜査논란

「朴군 死因조작」놓고 檢察 법조계 맞서

검찰 "결과적으로 「질식死」발표…犯法아니다"

법조계 剖檢醫 압력 회유자체가 범죄 소지

고朴鍾哲군의 사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迪駿박사가 사건당시 姜玟昌 전치안본부장등 경찰고위간부들로부터 사인을 단순쇼크死로 조작하라는 압력과 회유를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姜전본부장등 경찰고위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12일 姜전본부장등이 사인을 조작하려다 賈박사의 소신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대로 「질식사」로 발표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대검중수부장은 그러나 13일 賈박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일기장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재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사실상 이사건 재수사에 들어갔음을 비쳤다.

이와관련 하계와 재야법조계에서는 賈박사의 일기장내용대로 姜전본부장등이 사인을 조작하기위해 賈박사에게 압력을 넣고 회유하려 했다면 실패했더라도 형법 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혐의는 충분하므로 재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계와 재야법조계는 또 만약 姜전본부장등이 고문치사사실을 사건발생 처음부터 알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혐의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姜信旭대검중앙수사부 2과장에게 보도된 일기장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수사자료 및 법률적용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고있다.

한편 金日秀교수(고려대)는 「賈박사의 일기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姜전본부장등은 형법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어긴 혐의점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姜전본부장등이 고문치사사실을 사건발생초기부터 알고 사인을 허위발표했다면 賈박사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認知)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洪性宇변호사는 「姜전본부장등 경찰고위간부들이 부검의사에게 압력을 넣어 사인조작을 하려했다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는 충분한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하계와 재야법조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18조①항에는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항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처벌조항도 두고 있는만큼 검찰이 姜전본부장등 경찰간부들의 실정법위반여부를 명백히 밝히지않을경우 검찰의 직무유기라고지적했다.

趙英來변호사는 「부검의에게 압력을 넣어 사인조작을 기도했다면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의사를 갖고 행한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姜承求기자〉

검찰, 姜玟昌씨 소환 검토

당시 治安본부장 진술서 제출

검찰은 12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발생직후 당시 姜玟昌치안본부장을 비롯 경찰수뇌진들이 고문치사사실을 알았던 쇼크사로 조작했음이 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증언으로 드러남에 따라 姜전본부장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위해 지난해 5월 축소조작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검중앙수사부 수사팀으로 하여금 黃박사의 증언일기장과 당시 수사기록을 토대로 姜 전본부장등에 대한 재수사를 법인 경우에 대비, 적용 법조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黃迪駿박사 辭職書

黃迪駿박사는 12일 고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에 관한 부검당시의 일기공개와 관련, 尹重鎭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 1988. 1. 13

犯人축소지시했으면 刑事책임

경찰高位간부의 法的책임

拷問致死 사실은 3日후에 발표

法的 책임보다 道義的책임 더커

14일로 1周忌를 맞는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은 당초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쇼크死로 조작하려 했다고 朴군의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姜致昌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쇼크死로 조작하려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고문경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지시했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아본다。

◇고문 은폐기도=검찰은 섭사 경찰간부들이 부검의사 黃박사에게 부검결과를 쇼크死로 처리토록 회유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실정법 위배행위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의발표대로「탁」치니「억」하고 죽었다」고 장기간 사망원인을 은폐했던 것이 아니라 3일후인 1월19일 고문치사로 발표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책임문제라는 것이다。

이같은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이 더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인식정도로는 부족하고, 역할분담을 지시한다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회유하는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직무유기=姜致昌·李永鎭전치안본부장이 범인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이론상 1년이상 최고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였지만 이 사건 수사에 직접 간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당초 수사를 맡았던 특수수사대 책임자로 보아야하고, 때문에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경찰간부들이 범인수를 줄여 수사기관을 속인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의견도 일부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인인지 아닌지, 범인수를 줄였는지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속였다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더구나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는만큼 수사기관에서 어느점도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권리인 셈이라는 것이다。

〈申性浩기자〉

동아 88.1.13 社說

관련자 搜査 철저하라

—고문치사 은폐조작의 진상 재수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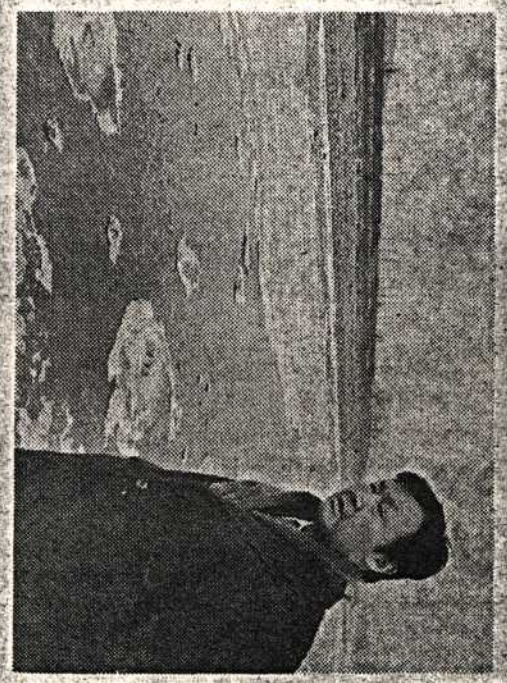
고문치사 은폐조작의 진상 재수사해야

지난 6일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을 고문하여 치사케 한 사실을 은폐하고 시신을 화장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중순 이래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그 때마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은폐조작의 내막이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의지의 생애 사랑의 아모지

朴, 아부지가 다시 왔대이…"

아모지 매장안한건 관수들 후회"



아모지 김순이씨

아모지 김순이씨

아모지 김순이씨

중앙 1988 1. 13

"관련 경찰首腦部 고발하겠다"

故 朴鍾哲군 아버지 朴正基씨

故朴鍾哲군의 아버지 朴正基씨(59)는 13일 『고문으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도 이를 은폐·조작하려한 당시 검·경수뇌부와 법부부장관등 10여명을 앞으로 두렷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朴씨는 이날 黃迪駿박사의 일기장 공개와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을 전해 들고 『짐작했던 일이나 새삼 치가 떨린다』며 『여러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뒤늦게나 마 진실을 밝힌 黃박사에 게 감사하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투쟁을 벌여 정확한 진상을 가리고 배후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朴씨는 경찰수뇌부의 사건조작과 사건조송치, 수사조기종결, 검찰의 약식 현장검증, 범인은닉수사방조등 과정은 사건의 조작·은폐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차원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진짜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 1주기 추모제가 끝나는대로 정부를 상대로 그간 죽음에 충격을 받아 가족들이 경황중에 미뤄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으며 소송 일체를 대한변협에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朴씨는▲朴군의 정확한 연행시간▲고문시간▲전기고문 여부등 사건에 대한 간단한 의혹마저 풀리지 않은 채 검찰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돼 사건의 진상이 파헤쳐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발단부터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도 피고인들이 담당검사의 지휘아래 사건각본에따라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본다고 주장, 재판자체도 인정할수 없다고 했다.

朴씨는 경찰과 釜山市관계자가 범인 축소조작사건이 폭로된 지난해 5월 이전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금의 보상금과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체 설립등을 제시해 왔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또 경찰은 당시 아들 죽음에 충격을 받아 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사이 사체인수증과 합의서등에 강제다시피 지장을 받아낸뒤 가족들의 철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체를 화장, 골치아픈 증거를 없애려 했으며 결과적으로 부모가슴에 무덤없는 자식을 만들고 말았다는 한을 남겨 놓았다고 비난했다.

朴씨는 이같은 아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1주기 추모제를 마친대로 서울근교에 주검없는 무덤을 만드는 초혼장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말 근무하던 釜山市靑鶴洞양수장 주임직에서 정년퇴직한 朴씨는 釜山市槐亭洞현진신태양아파트로 이사해 살고있다.

朴씨는 13일상오10시 釜山市槐亭3洞 서리안에서 열린 아들의 1주기 위령제에 참석했으며, 朴군의 어머니 鄭且順씨(55)와 누나 炅淑양(25)은 14일 서울大에서 열린는 朴군추모집회 참석차 서울岡峴洞 朴군의 형 鍾富씨(29)집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인 지난해 12월 14일 釜山市草梁洞에서 民正黨방송차를 보고 『살인마』라고 외쳤다가 함께 가던 釜山民家協 소속 회원 12명과 함께 30여명의 民正黨청년당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신타박상을 입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한 朴씨는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있는 세상이 와야 저승에서라도 鍾哲이를 볼 면목이 있을것 같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金斗宇·趙鏞鉉기자>

巨額보상등 회유도 거절

"裁判까지 각본따라 진행"

『법정투쟁을 통해 진짜 배후를 가리겠다』고 말하는 朴군의 부모 朴正基·鄭且順씨부부. 아들의 영정을 앞에 놓고 또한번 눈시울을 적셨다.

"은폐·조작 경찰幹部 告發하겠다"

朴鍾哲군 1週忌… 아버지 朴正基씨 밝혀

세월이 약이라더니 세월은 알고있었고 범죄를 은폐·조작하려 했다는사실이 공개된 오히려 병이었다. 지난해 1월14일 朴鍾哲군이 숨진뒤 꼭 1년이된 지금 朴군 가족의 가슴속에서는 세월과 더불어 슬픔과 아픔이 더커지고있다. 치안본부장등 경찰의 수뇌까지 고문치사사실을 처음부터 주기추도 천도법회에는아버지 朴正基씨(59)·부산 民家協회원·일반신도등 1백여명이참석, 朴군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법회는 주지 方道承스님의진전으로 치러져 三歸依 독경 헌공 법어(通度寺志安스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아버지 朴씨는 『아직 철이의 죽음엔 의문점이 많으며 사실대로 발표된적이없다』며 『진실이 바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머니 鄭且順씨(55)와 누나 恩淑양(25·釜山산업대 4년)은 서울의 형 鍾富씨(31)집에 머무르며 14일하오 서울大 추모대회에 참석키로하고 이날 법회에는 나오지않았다. 이에앞서 朴씨는 지난12일 13일상오10시 朴군의 위패가 봉안된 부산沙下區槐亭3洞240 舍利庵에서 열린 1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14 事件 후 감시·협박 시달려

1988 한국 매장못한것 후회… 招魂葬 치를터

변협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씨는 사건이후 가족들이 공권력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사복경관이 집주위를 떠나지않고 감시를 계속했으며 전화도청, 국민학생을 가장한 협박과 호소편지 때문에 괴로운 생활을 계속해야했다.

釜山 靑鶴양수장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6월29일 정년퇴임한 朴씨는 퇴임식장에서 갑자기 훈장을 준다는 발표를듣고 『「괴로운 손」이 선심으로주는 훈장을 내가 왜 받느냐』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했다.

그후 朴씨는 재판이 열릴때마다 법정에나가 고정재판을 요구하거나 民家協에 들어가 활동해왔다.

朴씨는 『지금 후회스러운것은 철이를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것』이라며 『유품이라도 모아 묘를 만들고 싶은데 화장당시 경찰이 하숙집을 뒤져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월14일은 민주화의 희생양이된 朴군의 극락왕생을 비는 날이돼야 했으나 막상제단에 올려진것은 「경찰수뇌재수산」란는 쓰디쓴 제물이되고 말았다.

朴씨는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않겠지만 하루빨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돼야만 저승에서라도 철이를 볼 면목이 설것같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釜山=金大成기자】

◇朴군 아버지의 祈願 부산 舍利庵에서 13일 열린 朴鍾哲군 1주기제에 참석한 아버지 朴正基씨가 두손모아 아들의 명복을 빌고있다. 【釜山=聯】

화장한 아들의 유해를뿌린 臨津江 샛강을 찾아가 아들의이름을 목메어 불러보며 恨을 삭였다. 朴씨는 이날 달국의 종용으로 열렬결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1주기 추모제를 마치는대로 서울근교에 주검없는 무덤을 만드는 초혼장(招魂葬)을 치를 결심을굳혔다고 말했다.

朴씨는 또 『은폐·조작 하려 한 당시의 관계자들은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朴씨는 『貢 迪駿박사의 일기장내용과 安 商守변호사의 증언은 조작한 일이기했지만 가슴이 떨린다』면서 『그동안 미뤄온 정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소송일체를 대한

조선 1988. 1. 14

剖檢医, 檢察에 출두 徹夜진술

"일기장內容 사실이다" 주장

朴鍾哲군 고문致死

中搜部 "모든것 원칙대로 搜査"

당시 警察수뇌 今明 소환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재수사에나선 검찰은 13일 부검의사 黃迪駿박사 (42)를 소환, 일기장 내용에대해 철야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黃박사는 자신이 기록한 일기장의내용은 모두사실이라고밝혔다.

黃박사는 그러나 「경찰수뇌들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일부의 얘기등은 잘못알려진 것으로 사인문제와 관련, 협박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朴군사건직후 당시 경찰수뇌부를 이 朴군사인을 「쇼크사」로 해줄것을 강요, 또는 희유했다는 일기장내용의 진실여부를가리기위해 우선 姜致昌 당시 치안본부장을 금명간 소환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나머지 경찰수뇌들도 소환,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청에 자진출두한 黃박사로부터 문제의일기장을 제출받고 姜昌旭대검중앙수사부 2과장이 직접 맡아 일기장작성및 공개경위와 일기장내용의 진위여부에대해자술서를받는등 14일새벽까지 조사를벌였다.

검찰은 黃박사의 일기장원본과 자술서외에 증거자료를 보강하기위해 이날 밤11시50분쯤 黃박사를 수사관2명과 함께 서울강서구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부검관계서류를 가져오게 했다.

검찰은 수사확대에 대비, 중앙수사부1, 3, 4과도 투입, 수사진을 보강했다.

黃박사는 지난12일오후 혼자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날 오후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상경, 검찰조사에 응했다.

金慶會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에앞서 『검찰은지난해5월 의범인축소조작사건수사때와 마찬가지로 모든것을 원칙대로 공개수사해 밝히겠다』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불러 조사하겠다』고 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일기장 내용의 사실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간부들의 실정법위반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말 李永鎭당시치안본부장이 범인축소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朴處源치안감의 발언과 관련, 李전본부장의 소환조사여부도 검토중이다.

◇13일 오후 朴鍾哲군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迪駿 박사. <사진=具滋虎기자>

"검찰 직무유기 밝혀야" 법조계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이 당시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와 지휘검사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을 계기로 검찰이 재수사에나서는등 새국면을 맞고 있으나 범인조작사실등을 알고도 수사하지않았던 검찰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여부및 이와관련된의문점들에대해서는 조사하지않기로해, 형평을잃은 처사란 지적을 듣고있다.

검찰은 13일 이사건수사재개발표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은폐조작사실을 알고서도 수사에 착수할수없었다」고 한 安변호사의 증언과관련, 『새로 밝혀진 사실이없어 현재로서는 조사의 필요성이없다』고 밝혔다. 검찰의이같은태도에대해 재야법조계등에서는 집안의 과오는 덮어두고 남의 잘못만을 들어 내려는 처사가 아니냐』며 의아해하고있다.

安商守변호사는 지난 12일 증언을 통해 지난해 2월27일 검찰의 고문치사 은폐축소조작 사실을 검찰이 인지, 수사계획서를 살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묵살됐다고 말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밝힌데이어 趙漢慶경위등 관련 경찰관 2명을 기소만 기를 15일이나 넘겨놓고 서둘러 기소했다고 주장하는등 당시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黃박사의 일기중에서도 경찰수뇌중 한사람이 『서울지검 공안부에는 이야기가돼 있다』고 말한것이 사실이라면 朴군사건의 초동수사권을 「경찰의 명예를 위해…」등의 이유로 경찰에 맡긴점을 비롯▲범인이 참여하지않은비공개현장검증▲지난3월7일 趙漢慶경위등의 갑작스런 의점부교도소로의 이감▲고문경찰관 2명에게 지급했다는 돈의출처와 지급경위등이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安변호사의 증언대로 검찰이 경찰의 은폐축소조작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지난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朴군고문치사범 3명이 따로있다」는 성명이 나온뒤에야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이와함께검찰이받았다는 「외부압력」도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는 의견이다. 朴군사건수사를 지원했던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검찰수뇌부등 5개기관이 관여했으나 검찰의 「묵소린」는 20%도 못됐다』고말하고 있어 검찰권의 독자성 확보문제까지 제기되고있다.

權晧奭서울대교수(법학)는 『검찰이 朴군사건 당시 외부압력에 의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것은 당시상황으로 볼때 불가피한것이었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그에 따른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週刊朝鮮
735-2990

「朴군」剖檢醫 徹夜조사

한국 1988. 1. 14

大檢, 再搜査착수 "日記내용은 사실" 진술

姜 前본부장등 속명소환

"公開수사로 관련자 全員처벌"

◇黃박사 검찰出頭 黃迪駿박사가 대검 중앙수사부의 소환을 받고 검찰청사에 들어서고있다.

경찰수뇌진의 朴鍾哲군고문치사 은폐조작관련여부를 재수사키로한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3일 朴군의 부검의 黃迪駿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를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姜致昌전치안본부장등 당시 치안본부간부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방침이다.

黃박사는 이날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자 하오6시께 姜信旭대검중앙수사부 2과장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하오 7시 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姜과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일기장을 들고 온 黃박사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일기공개등기등에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뭔은 잘못휘두르면 한 사람만 죽이지만 펜은 잘못휘두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검사실로 들어갔다.

黃박사는 이날 조사에서 사건과관련한 자신의입장이 일부과장보도된 점도있으나 일기내용은 모두사실그대로이다」라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黃박사는 또 「이번일로 본의아니게 물의를 빚게돼 관계자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일기내용은 사건20일쯤 뒤에 한꺼번에적는라 날짜가 다소 틀린등 일부사실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당시 심경과 상황을 정확히적은것」이라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黃박사는 조사도중 밤11시 55분께 청사에서나가 서울陽川區 新月洞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실에서 부검결과서류를 갖고 돌아왔다.

黃박사의 일기내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姜전본부장을 소환, 조사키로했다.

金중수사부장은 이날 재수사착수와 관련, 「지난해5월의 범인 은폐 조작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밝힌다는 기본방침아래 공개수사를 벌이겠다」며 「우선 黃박사의 진술을 받아 검찰본뇌들의 사인허위보고 강요사실을 확인하 관련자들의 소환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金중수부장은도 「현재로서는 검찰수뇌들이 구체적으로어느 정도까지 허위·강요했는지 밝혀지지 않은단계이므로 실명 범상 어느혐의가 적용될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조사결과에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전·현직의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중수부장은 朴군사건의 주임검사였던 安廉宇변호사의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安변호사가 고문치사부분과 은폐조작부분에대해 언명하시실은 없다」고 전제한후 「현재로서는 고문치사부분에대한 사실확인 단계이지 安변호사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에서 지난해 1월16일 검찰수뇌들이 黃박사에게 단순 쇼크사로 사인을 허위감정해달라고 회유·협박한 부분외에 고문치사범인을 축소한 파장에 개입한 여부까지 수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죄, 형법상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이사건 수사를 지난해5월 朴處源전5차장등 중앙수사부 2과(과장 姜信旭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수뇌들의 소환등 수사확대에따라 중앙수사부 1·3·4과도 투입, 수사진을 보강키로 했다.

"은폐강요 있을수 없는일" 姜致昌씨

"아직裁判중… 은폐안했다" 朴處源씨

치안본부는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은폐조작사실이 또다시 재발되자 초상집같이 침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검찰수뇌부는 13일 한결같이 「黃박사의 일기내용과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朴군사건에 개입되지 않으로 알려진 현직 간부들은 일체외부와의접촉을끊고있다.

일부간부들은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는데 왜 다시 들추어내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치안본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의 상징처럼인식되지것을두려워했다. 당시5차장이었던朴處源치안감은 지난해5월 구속기소됐다 4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구속됐다가 풀려난 劉井邦경정, 朴元澤경정등은 朴치안감처럼 직위해제상태에서 50%의 월급을 받고있다.

姜致昌, 李永昶전치안본부장은 각각 경북安東, 淸道에서 13대총선에 나설 계획이었고 당시 4차장이었던 朱炳憲치안감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해경대장으로 전보됐다.

▲姜致昌씨 (前치안본부장)=처음엔 쇼크사로 보고받아 진상을 몰랐으나 부검결과가 나온 뒤부터 자체수사를 시켜 관련자를 구속하는등 모든조치를 취하고 물러났다.

이런식으로 정부권위를 실추시켜 누가 득을볼것인지 의심스럽다. 당시 黃박사가 부검결과를 설명하러와 본부장 부속실등에서 간부들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난 난 일이 없다. 은폐강요는 있을수 없는일이다. 독극장으로 파악수사연구소간부에게 돈을 주었은 고생하는 부하들에 대한 의례적인 일이었다. 「당신은에는 잊지 않았다」는 말은 한일이 없다.

▲朴處源씨 (前5차장)=당시 차장들은 「큰일났다. 방법이 없겠는가」고 걱정했을뿐 은폐시도는 하지않았다.

黃박사는 치안본부특수대에서 조사를 받을때 사인을 사실대로 진술했었다. 부검도 내가 주장한것이다.

부검전인 15일하오 姜致昌본부장은 朴군사인에 대해 「책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姜致昌씨

◇朴處源씨

黃박사 12일 辭表

黃迪駿박사는 지난12일하오 사표를 제출했다.

黃박사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은바없으나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원점서 再조사를」 국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金勝勳신부)은 13일 朴鍾哲군고문치사1주기를 맞아 「朴군고문치사사건의 진상과 은폐조작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진상과 은폐조작경위를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 감춰진 진실을 밝힐것을 거듭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88. 1.14

"剖檢日記" 사실에 입각했다

朴鍾哲군 剖檢 黃迪駿박사 一問一答

剖檢후 死因 安검사에 처음 밝혀

전기拷問 흔적은 찾을수 없었다

執刀醫의무에 충실…일기는 事件20일뒤 쓴것

"저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무어라 말못할 도의적 책임감을 느낍니다"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경위와 관련, 姜玟昌前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가 처음부터 고문치사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고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직을 스스로 물러난 黃迪駿박사(40)의 퇴임의 변이다.

黃박사는 朴군의 사체를 부검한뒤 20일쯤 지나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일기장이 본의아니게 공개된데 대해 매우 언짢아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중의 하나"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黃박사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기장에 기록된 사건경위는 대체로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黃박사와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공개된 내용은 사실인가.

▲사실이다.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잘못된 부분은 크게 보아 없다. 다만 朱炳德前치안본부4차장이 朴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해달라"고 회유·협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일기를 매일 썼는가. 또 이제와서 공개하게 된 이유는.

▲매일 쓰는건 아니고 중요한 때에만 쓴다. 당시 姜본부장이 2차발표를 한 지난해 1월19일이후 20일쯤 지나 집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며 한꺼번에 썼다. 최근 기자가 찾아와 부검등기부분에 대해서만 보도할 것을 전제로하고 인터뷰를 했었다. 이처럼 보도하지 않았다던 일기장까지 공개되리라곤 생각 못했다.

—당시 치안본부에 불려가게 된 경위는.

▲15일 하오 4시40분쯤 치안본부로부터 "부검필름을 구성해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치안본부청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영문을 모르고 답히 들어갔다.

—부검전 朴鍾源치안감이 고문치사일지도 모른다는 시사를 했었다는데.

▲朴치안감이 "숨진 대학생이 쇼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3—4회 욕조에 담았으니 익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부검후 사인을 최초로 누구에게 말했는가.

▲당시 서울지검 朴군사건 安鎭守주임검사에게 밝혔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부검결과에 대해 더 밝힐 것이 있는가.

▲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고문치사 발표전까지 경찰의 회유·협박은 없었는가.

▲공개된 내용대로다.

—소견대로 사인이 발표되게 된 경위는.

▲집도의로서 소견을 굽히지 않았고 당시 직속차장이 "사실대로 사인을 발표하자"고 주장, 관철됐다는 후문을 들었다.

—경찰의 회유·협박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아내와 두아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형과 친구의 조언을 들었다. 특히 은사인 李모교수로부터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영향을 받았다.

—당시 朴군의 사인이 고문치사임을 "경찰수뇌부는 몰랐다"고 발표됐었는데…

▲나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부검집도의로서 사인규명에만 충실했다.

—일기장이 공개된뒤 외부압력은 없었는가.

▲없었다.

—일기장을 정직으로 공개할 용의는.

▲있다.

—당시 朴군의 최초검시의인 吳演相씨는 어떻게 만났는가.

▲18일 하오 신길동(특수수사2대)에 조서받기 위해 갔던길에 거기서 나오던 吳씨와 잠깐 스쳤을 뿐이다.

—현재의 심정과 거취에 대해…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피해자들에 건듭 인간적 책임감을 통감한다.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찾아봐야겠다.

〈朴先和기자〉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당시의 일기장을 통해 경찰수뇌들이 고문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축소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黃迪駿박사가 13일밤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黃박사 진술내용 스스로 메모

중앙 1988 1. 14

故朴鍾哲군사건 再搜査 주변 스케치

○…黃박사는 검찰과의 약속시간보다 5분빠른 13일 하오7시25분쯤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검찰청 정문앞에 도착한뒤 카메라 세례속에 중앙수사부 청수하고 승강기안에 재기자들만 남아 질문세례를 퍼붓자 『칼을 잘못 휘두르면 한사람만 죽이지만 펜(언론)을 잘못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대변.

黃박사는 13일 아침일찍 『조용한데 가서 며칠 크린하는 한편 신문 스크랩까지 훑어보고 취재진리 루리하게 黃박사에게 사건의 진전및 여파등을 물어본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13일 하오8시쯤 한검찰고위관계자는 『黃박사를 철야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3~4시간이면 충분하고 보도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14일상오 조사결과를 알려주겠다』며 보도진들이 미리 루리하게 黃박사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부탁.

○…黃박사는 귀가하기 직전 담당검사·수사관들에게 진술내용을 복사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진술요지를 자신이 메모해 주목.

黃박사는 조사도중 담당검사에게 『40여년을 살아오기도 했다.

○…姜玟昌前치안본부장이 朴鍾哲군의 사인을 고문치사가 아닌 쇼크사로 은폐하려 했을경우 이에대한 직무유기죄 성립여부를 질중검토해온 검찰은 직무유기로 볼수 없다고 결론. 이는 姜전본부장이 당초 朴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발표했으나 결국 부검결과가 나온뒤 고문치사로 다시 발표해 일시적인 직무유기 의사가 있었다해도 미수범(未遂犯)에 해당되는데다 직무유기죄가 범인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케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의 개념으로 본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

○…13일밤 黃박사를 철야조사한 검찰은 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의 소환문제를 놓고 회의를 계속하는등 진통.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14일상오 여론을 의식하면 姜전치안본부장을 소환하고 17일부터 조사에 착수, 18일 趙漢慶경위등 2명을구속한뒤 19일 朴군고문치사에 대한사건전모를 발표한뒤 20일 물러났다』고 밝히고 『불교신자로 부검을 반대한 朴군가족들을 설득,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토록한것은 쇼크사라는 부하들의 보고가 잘못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것』이라고 말했다.

姜씨는 또 黃박사에게 격려금을 준것은 부검을 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함께 발을 세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원 4명과 함께 목욕이나 하라고 준것이며 돈을주면서 은혜를 잊지않겠다고 말한사실은 전혀 없다고했다.

朴군 부검의 黃박사를 철야조사키 위해 불밝힌 13일밤의 大檢 중수부.

檢察 주무부서課長 모두 대기
姜前본부장 召喚 놓고 고민중

수겠다』며 집을 나갔었으나 검찰의 소환에 하오 7시30분 출두하겠다고 전화로 미리약속했었다는것.

○…검찰은 재수사결과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黃박사가 검찰에 출두한 직후인 13일밤부터 주무부서인 대검중수부2과는 물론 1, 3, 4과 과장이 모두 밤무용 노트 한권만을 들고 늦게까지 대기해 이사건 검찰청내로 들어선 黃의 비중을 반영.

부장검사인 파잠룡은 법무실로 직행.

밤색바지와 세무 반코트속에 노타이 차림으로 사무용 노트 한권만을 들고 검찰청내로 들어선 黃박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체 함구.

현직·朴군사건 검찰관들 등 黃박사는 사진기자들이 수없이 많겠느냐』고 말해 수사결과보단는 여론을 의식하는듯 했으나 결국 黃박사를 14일 아침까지 만 12시간동안 철야조사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13일상오 黃박사소환발표이 정해진 직후부터 黃박사와 연락을 취하려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및 가족들까지 동원해 하오5시쯤에야 연락에 성공.

하오7시30분 자진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2과장 姜信旭부장검사는 사진기자들이 많겠느냐』고 말해 5월처럼 조사결과가 석연치 않아 현사처럼을 이끌어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오히려 소환하지 않은것만 못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하소연.

이 간부는 또 지금은 작년 5월과 상황이 크게 달라져 야당에서 국정조사 권발동등 목청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칫 비난의 표적이 될 수있다고 하소연.

姜玟昌前치안본부장 "은폐强要 있을수 없다"

◇姜玟昌씨

조선 1988 1. 14

1983년 1월 4일 병원에서 부검을 하게 하는 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됐는지모르겠다』면서 『은폐강요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姜씨에의하면 朴군이 사망한 14일 부하들로부터 朴군이 쇼크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15일오후 한양대병원에서 朴군의사체를 부검한 黃박사로부터 고문에의해 죽은것같다는 설명을듣고 조사에 착수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姜씨는 『다만 16일은 朴군의 장례일이라 조사를하지못 전 치안본부장 姜玟昌씨는 13일 朴鍾哲군부검을 한 黃迪駿박사가 고문치사사실을 은폐 강요했다는 내용의일기를 공개한데대해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朴군가족을 설득, 경찰병원이 아닌 제3

姜 前治安本部長 곧 소환

동아 87.1.14

朴군拷問致死사건 黃박사 檢察출두 철야조사 받아

"日記내용은 모두사실" 관련警察간부도 조사

黃박사 검찰

大檢출두 黃박사 고 朴鍾哲군부검의 黃迪駿박사가 13일오후 대검중수부에 자진출두, 일기장내용에 관해 검찰의 철야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경찰수뇌진의 朴鍾哲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관련여부를 재수사키로한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3일 오후 朴군의 부검의 黃迪駿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학1과장)를 참고인으로 자진출두토록해 철야조사, 黃박사로부터 『일기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금명간 姜致烈당시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을 비롯, 朴處源전5차장 朱炳德당시4차장(현 해경대장) 李敬祚3차장 劉吉鑑 전2차장 등 朴군 고문치사사건당시의 경찰수뇌들이 朴군의 사인을 「쇼크死」로 해줄것을 요청했었다는 부검의 黃박사의 진술에따라 이들을 소환, 사인은폐조작기도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에도 당시 본부장실에있던 경찰간부 중 黃박사가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있을것으로보고 수사중이다.

13일 철야로 진행된 참고인조사에서 黃박사는 공개된 일지장의 주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姜전치안본부장 등 당시 경찰수뇌들이 朴군의 사망원인을 「쇼크死」로 해달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으나 그같은 권유가 있었다는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黃박사의 참고인조서를 받은 姜信旭대검중수2과장은 『黃박사의 일기장내용은 거의 사실인것같다』며 『그러나 압력이나 회유의 정도를 현재의 단계에서는 알수없기 때문에 관련자에대한 조사가 끝난뒤 朴군사인은폐조작기도여부를 밝힐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黃박사일기장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당시 黃박사와 함께 치안본부를 찾아가는등 행동을 같이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尹重鎭씨와 부검관련 교수등 2, 3명에 대해 14일중 출두를 요청, 참고인진술을 듣기로 했다.

金慶會대검중수부장은 姜전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들의 정확한 소환시기에대해 『일기장내용의 신빙성이 확인되는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늦어도 15일중으로는 사건관련 경찰수뇌들을 소환조사할것으로 보인다.

黃박사는 이날 검찰에서 『일기내용은 사건발생 20일쯤 지난뒤에 한꺼번에 메모식으로 정리한것으로 시간 장소등이 다소 사실과 다를수있으나 당시 오고간 대화와 상황 심경등은 정확히 기술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黃박사의 일기장내용 중 「당시 4차장(朱炳德치안감)이 서울지검공안부와 협조가 되었으니 검찰측은 적정치말라고 했다는 사실과 관련,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대목은 당시 검찰고위간부들이 경찰수뇌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시 검찰관계자들에대한 직무유기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부분에대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체수사는 펴지않고 있다.

관련자 전원拘束 사건전모 밝혀라

辯協조사단 聲明

대한변협인권위원회 고 朴鍾哲군사건 진상조사단(단장 柳炫錫변호사)은 14일 검찰의 朴군사건재수사와 관련, 성명을 발표, 『범행목 소도자 은폐기도에 朴處源치안감등 이외에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위간부였던 인사도 깊이 관여한 흔적이 있으며 검찰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믿고있다』며 『검찰은 이번기회에 전모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당시 수사지휘했던 安商守변호사가 밝힌 검찰상부의 압력,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정체와 참석자의 구성및 회의내용과 결정사항을 공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전면재조사 촉구

정의구현司祭團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金勝勳신부)은 13일 고 朴鍾哲군사망1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 『정부당국은 朴군고문치사사건의 명확한 진상과 은폐조작의 경위를 원점에서 전면재조사해 규명하여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剖檢소견서 3번 고쳐썼다"

중앙 1988. 1. 14

黃박사 檢察출두 회유받아 일부 削除·조작

科搜研소장도 소환 日記내용 확인

당시 경찰首腦 今明소환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인조작 사건의 수사에 나선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3일밤 부검의사 黃迪駿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 1과장)를 참고인으로 소환, 철야조사한 결과 黃박사가 일기장에서 폭로한 사실이외에도 경찰수뇌부의 회유와 부탁에 따라 朴군의 부검소견서를 3가지로 작성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黃박사의 진술내용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尹重鎭소장을 14일중 소환조사한 뒤 금명간 姜玟昌당시치안본부장등 경찰고위간부들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黃박사 진술=黃씨는 검찰에서 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부들이 朴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해주도록 자신에게 부탁·요청했으며 이에따라 자신은 부검소견서를 사실대로 경찰최고간부들이 자신에게 부검소견서를 조작하도록 협박·회유했다는 본도는 사실과 다르며 일기장에 적힌대로 「부탁·요청」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黃박사는 13일하오7시30분 검찰청사에 도착, 대검 중수부 2과장 姜信旭부장검사로부터 14일 상오7시30분까지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黃박사를 상대로 ▲일기내용의 진위여부▲일기를 쓰게된 경위▲일기내용과 당시 사건 기록과의 차이점등을 조사했으며 특히 姜전치안본부장등 경찰간부들이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黃박사를 어떤 방법으로 회유·협박 했는지를 중점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黃박사의 일기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黃박사의 진술만으로 당시 경찰간부들의 범죄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黃박사의 일기가 1월20일후에 작성된 메모 일기라기보다는 메모 형식이어서 신빙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尹소장을 소환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尹소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을 비롯, 경찰관계 간부들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자진출두한 부검의사 黃迪駿박사. 黃박사는 13일밤부터 시작된 12시간동안의 검찰청야조사에서 『朴군 사인을 조작하도록 경찰간부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辯協、관련자 拘束 촉구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는 (14일 朴鍾哲군 1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 『朴군부검의 黃박사진술에 의해 당시 경찰수뇌부의 사건진상은폐음모는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치안본부장 姜玟昌씨등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해 사건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3개 大學生들 朴鍾哲군 1주 추모

고朴鍾哲군 1주기 추모식이 14일상오11시부터 전국 23개 대학에서 거행됐다.

서울에서는 이날상오11시 延大·梨大등 12개대학에서 각각 추모식을 가졌으며 하오2시에는 서大協 주최로 서울大에서 「고문살인·부정 당선일당및 美國처단 결의대회」를 갖는다.

또 서울조계洞 開運寺에서는 하오2시부터 민주쟁취불교공동위원회 주최의 「고 朴鍾哲1주기 추도법회」가 열린다.

한편 경찰은 학생들이 추모집회를 가지뒤 가두시위를 벌일것에 대비, 가두및 공공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축소造作」묵인 檢察은 왜 조사않나"

동아 88.1.14

등114

朴군사건 再搜査 재야法曹界 반응

경찰"우리만 희생羊 될수없다"볼멘항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참석자 책임 물어야

黃박사 조사관"경찰 왜 이런짓했나"한탄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주요증인인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에 따라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경찰수뇌부가 은폐조작을 시도했다는 새사실이 밝혀진것과 관련, 재야법조계에서는 安변호사의 증언중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시, 이에대한 진상이 차제에 밝혀져야한다고 지적.

재야법조인들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수사를 경찰에서 맡도록 했다 △기소만기 15일이나 남겨놓고 서둘러 기소토록했다 △법인없는 간단한 실황조사만으로 현장검증을 대신했다 △趙경위등의 심경변화직후 수사계획서를 올렸으나 묵살당했다는등 安변호사의 증언은 말로만 듣던 「外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열거한 사실들로 이에대한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한다고주장.

재야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원과 기능역할등이 베일속에 가려져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이 警察서 성고문사건등 중요시국사건의 처리방향을 오도한 「잠복인」이라고 지적,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내용과 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끼친 과오를 낱낱이 공개할것을 요구.

이같은 재야법조계의 지적에대해 검찰관계자들의 반응과 「대책회의」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않고 검찰만 계속 희생양으로 삼는것은 사건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멘소리를 하기도.

○…부검의 黃迪駿박사와 사건당시 수사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새로운 증언으로 朴군사건이 재수사단계에 이르자 검찰내부에서는 安변호사의 증언에대한 불만과 비난도 대두.

한 검찰관계자는 동「베를린」가협단사건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외부기관압력에 반발, 사표를 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安변호사가 해서도 수사가 이루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않고 검찰만 계속 희생양으로 삼는것은 사건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멘소리를 하기도.

○…黃迪駿박사는 13일 저녁7시25분경 부인이 운전한 흰색 프레스토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

미리 도착시간을 연락받은 검찰수사관2명이 청사 정문앞에서 대기하다 黃박사의 차가 도착하자 黃박사를 청사안으로 안내했으며 黃박사의 부인은 차안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청사안으로 들어가는 黃박사를 지켜봤다.

黃박사는 사진기자들이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대자 긴장된듯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의 땀을 닦기도. 黃박사는 검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기자들이 함께타고 계속 질문을 던지자 「칼을 잘못 휘두르면 한 사람만 죽지만 펜을 잘못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한마디한뒤 계속침묵.

○…黃박사에 대한 조사는 당초 철야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대검중수부2과장인 姜信旭부장검사의 예상과는 달리 14일 오전 7시반까지 12시간동안이나 계속.

이날 밤11시55분경 조사를 받던 黃박사는 姜부장검사방을 나와 수사관2명과 함께 陽川구新月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가 한시간만인 14일 0시55분경 서류봉투를 들고 돌아왔는데 姜부장검사는 「朴鍾哲군 부검관련서류를 가져오게했다」고 설명.

黃박사를 철야조사한 姜부장검사는 14일 아침 조사결과를 놓자 「黃박사의 진술로 판단할때 「고문치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朴處源치안감등 경찰간부들의 법정진술도 거짓말」이라며 「경찰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어두운 표정.

姜부장검사는 黃박사가 외부로 나가 가져온 서류가 어떤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밝히면 앞으로 경찰수뇌들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대답해 상당히 중요한 서류임을 시사. 조사를 끝낸 黃박사는 14일 오전7시반경 수사관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짧막한 인사만 한채 청사를 나서 귀가.

○…姜信旭부장검사가 직접 黃박사를 조사하는 동안 金慶會중수부장과 중수부과장 3명, 수사과 40여명이 전원 철야대기.

한 수사관은 전원 철야대기하는 이유에 대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함께기다려야 되지않겠느냐」며 「어차피 공개수사를 하겠다고 한 이상 黃박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뒤 다음 단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전망.

○…朴군 사인은폐설등에 관련된것으로 알려진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은 14일 「은폐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음에는 부하들의 보고만 믿고 내용을 잘못 알았으나 부검이 끝난뒤인 16일아침부터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란 것을 확신하고 자체조사를 시켰고 그뒤에 모든일을 정당하게 처리한뒤에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며 「그 당시에 수사도 않고 우물쭈물 했으면 모르지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또다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朴處源전치안본부5차장은 朴군이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뒤 당시 치안본부 수뇌들이 「큰일났다. 반법이 없겠느냐」며 걱정은 했으나 은폐시도는 하지않았다고 주장.

朴씨는 부검직전인 15일오후 姜전본부장이 朴군사인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밝혔는데 그날밤 부검결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인이 밝혀져 당황한것은 사실이다며 「그래서 부검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黃박사를 본부장에게 안내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李永昶전치안본부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姜致昌전본부장이 사건책임을 지고 물러난뒤 지난해 1월21일 후임치안본부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朴處源5차장으로부터 이사건에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더구나 은폐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잘라 말하기도.

한편 權福慶치안본부장은 朴군사인조작사건으로 검찰이 또다시 여론의 화살을 맞게되자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사건뒷수습을 맡아야하는 치안총수로서 곤혹스런표정.

權본부장은 「사건진상이야 검찰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이번사건으로 인한 경찰의 사기저하등 뒷수습이 문제」라며 괴로와하기도.

이사건 수사당시 주임검사로서 양심에 따라 처리했다면 이같은 발언이 나오지도 않았을테고 검찰의 명예도 훼손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

그러나 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安검사의 육기와 격단이 없었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었을것」이라고 덧붙이어 安변호사를 두둔. 검찰내부의 安변호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앞으로 대두될 검찰의 책임론에 대한 향방을 점치게 하기도.

○…이번사건과 관련, 丁海昌법무부장관은 13일 오전 鄭石謨민정당사무총장으로부터 「朴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것」을촉구한 盧泰愚대통령당선자의 의사를 전달받고 즉각 李種南검찰총장에게 盧당선자의 의사를 통보한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에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것이 전부라고 한 관계자가 전언.

○…黃迪駿박사는 13일 저녁7시25분경 부인이 운전한 흰색 프레스토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

미리 도착시간을 연락받은 검찰수사관2명이 청사 정문앞에서 대기하다 黃박사의 차가 도착하자 黃박사를 청사안으로 안내했으며 黃박사의 부인은 차안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청사안으로 들어가는 黃박사를 지켜봤다.

黃박사는 사진기자들이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대자 긴장된듯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의 땀을 닦기도. 黃박사는 검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기자들이 함께타고 계속 질문을 던지자 「칼을 잘못 휘두르면 한 사람만 죽지만 펜을 잘못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한마디한뒤 계속침묵.

○…黃박사에 대한 조사는 당초 철야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대검중수부2과장인 姜信旭부장검사의 예상과는 달리 14일 오전 7시반까지 12시간동안이나 계속.

이날 밤11시55분경 조사를 받던 黃박사는 姜부장검사방을 나와 수사관2명과 함께 陽川구新月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가 한시간만인 14일 0시55분경 서류봉투를 들고 돌아왔는데 姜부장검사는 「朴鍾哲군 부검관련서류를 가져오게했다」고 설명.

黃박사를 철야조사한 姜부장검사는 14일 아침 조사결과를 놓자 「黃박사의 진술로 판단할때 「고문치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朴處源치안감등 경찰간부들의 법정진술도 거짓말」이라며 「경찰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어두운 표정.

姜부장검사는 黃박사가 외부로 나가 가져온 서류가 어떤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밝히면 앞으로 경찰수뇌들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대답해 상당히 중요한 서류임을 시사. 조사를 끝낸 黃박사는 14일 오전7시반경 수사관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짧막한 인사만 한채 청사를 나서 귀가.

○…姜信旭부장검사가 직접 黃박사를 조사하는 동안 金慶會중수부장과 중수부과장 3명, 수사과 40여명이 전원 철야대기.

한 수사관은 전원 철야대기하는 이유에 대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함께기다려야 되지않겠느냐」며 「어차피 공개수사를 하겠다고 한 이상 黃박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뒤 다음 단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전망.

○…朴군 사인은폐설등에 관련된것으로 알려진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은 14일 「은폐

1988. 1. 14 한국일보

경찰·檢察 어떤 責任져야하나

朴군사건 死因조작-범인축소

조작목적 회유면 職務유기

법률위반 아닌 道德的문제

法적용놓고 攻防인상…「처음부터 알았느냐」가 열쇠

재야法曹 / 檢察반응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탐사 부검의사 黃紬 警박사 입기에서 밝힌대로 수뇌들이 처음부터 고문치사임을 알고도 사인조작을 시도했고 범인수를 줄이도록 지시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검찰은 어느정도의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검찰은 이에 대해 姜玟昌 전치안본부장등이 사인을 조작하려다가 결국 사실대로 「정식사」로 발표했으므로 실정법위반으로는 보기힘들고 도덕적책임문제로 귀착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재야법조계는 그러나 姜본부장등이 사인조작을 목적으로 黃박사에게 압력을 넣고 회유하려했다면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이 충분하므로 재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우선 고문사실은 폐를 기도한 부분에대해 검찰은 경찰 간부들이 黃박사에게 부검결과를 쇼크사로 처리토록 회유했다 하더라도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3일후인 1월19일 고문치사로 정식발표했으므로 직무유기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견해다.

姜昌玟변호사는 그러나 재야법조인들은 또 姜본부장등이 黃박사회유에 실패했다하더라도 사인조작 부분에대해 검찰은 만일 검찰수뇌가 범인수를 줄이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인도피죄(제151조1항)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6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할수 있다고밝혔다. 검찰은이같은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단순히 범인이 되어있을것이라는 추정이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분담지시, 금품제공, 회유등 적극행위가 뒤따라야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책임문제부분에 대해 담사자인검찰은 아직 언급이 없다.

재야법조계는 이와관련, 당시 검찰수뇌중 1명이 黃박사에게 『검찰과는 이미 협조가 돼있다』고 말한것이 사실이라면 검찰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여부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또 검찰이 범인축소사실 부분의 수사를 하지않고있다가 사건발생 4개월후인 5월18일 사제단의 「진상조작」정명이 있은 후에야 범인3명을 추가구속, 검찰이 축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있었다면 이에따른 책임규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와함께 사건초기 처리방안을논의했던 관계기관대책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할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金基天기자〉

1988. 1. 14. 한국

朴군사건 철저 규명을

盧당선자 當局에 적절한 對策촉구

野、國會소집요구등 政治문제화

여야는 13일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기도사실이 밝혀진것과 관련, 각각 진상규명과 관련자문책 또는 임시국회소집및국정조사권발동 고위관계자 엄단등을 요구하고나서 朴군사건이 다시 정치문제화될 조짐이다.

盧泰愚 대통령당선자는 이날 「국민에게 의혹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는것같으니 당직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할것이라고 당부하고 정부당국에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民主黨은 이날 의총에서 임시국회소집과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키로 하는한편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관련기사10·11면

1988. 1. 14 한국

死因 허위發表했다면 職務유기

朴군사건관련 法的 처리전망

可罰性 판단여부가 최대의 관심

축소지시땐 「犯人도피罪」에 해당

朴鍾哲군 부검의 黃珦駿박사(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새로운 진상」 공개에 따라 관련 경찰고위간부들에 대한 법적처리문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 진상」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야겠지만 사건이 알고 있는 개연적상황으로 미루어 은폐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은 13일 『일단 黃박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일기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모든것을 원칙에 입각, 정확히 밝히겠다』며 재수사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이 어떤 의도로 어느정도까지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뚜렷한 적용법조문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명백해진이상 가벌성여부의 판단이 중요할뿐 적용될 법조문은 큰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다는데 시각을 같이하면서 구체적 적용법조문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이고있다.

현재 검찰과 재야법조계에서 거론하고 있는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 형법상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죄및 경찰공무원법상의 허위보고죄등.

특수직무유기 경찰고위간부의 관련여부가 밝혀질 경우 다음 단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 직무유기죄」(15조) 적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듯싶다.

특가법 15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공무치사) 를 범한 자를 認知하고 그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공무치사 최고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형법 1백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방해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인조작에 실패했더라도 사인규명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사실이 판명된다면 이 처벌을 받게된다.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 黃박사에 대한 압력행위와는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게 다수 견해다.

특수직무유기죄는 1년이상 수년을 처벌하는조항이 없어 힘들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사망원인을 은폐했던 것이 아니라 3일만에 고문치사로 번복 발표했기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朴處源전5차장 등의 경우처럼 수사의 진전에따라 범인수를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경우엔 당연히 범인도피죄에의한 처벌을 받게된다.

허위진단서작성교사 黃박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와 같이 현행법상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어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보고용으로 작성한 『뭐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경위서를 조작토록 지시한 혐의가 밝혀지면 경찰공무원법상의 허위보고죄에대한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야법조계에서는 이법 제18조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적용될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위 黃박사 태가 발생한 경우가아니면 처벌할수 없어 적용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보인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찰수뇌들이 고문경관의 숫자를 줄이는 과정에까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 수사기관을 속인것이 되므로 이에 해당된다는 의견도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범인을 밝혀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을 속였다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돼있어 적용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金利澤기자】

隱蔽의 背後 가려내라

1988 1. 14 한국

—拷問致死사건 우물쭈물 못 넘긴다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한다。암흑의 장막이 아무리 두껍다 해도 진실은 끝내 스스로를 밝히고 만다。숨기면 숨길수록 분노는 내연하다 그 불길은 폭발적으로 타오른다。무참한 고문으로 살해된 젊은이의 孤魂이 시대의 양심에 준엄한 고발을 계속한다。시대의 양심은 마비 될대로 마비된 공권력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가차 없는 채찍을 가한다。

고 朴鍾哲군이 고문으로 죽은지 어언 오늘로 꼭 1년。진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기까지 그토록 어려운 한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단 말인가。공권력의 비열성에 새삼 통탄을 금할수가 없다。거짓말로 시작하여 은폐조작으로 얼버무리려 발버둥을 쳤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기상천외의 우화는 이렇게 치졸하게 시작되었다。국민을 바보쯤으로 여기고 속이려는 공권력의 오만은 결국 시민의 도발을 자초한 셈이다。고문치사의 진상이 은폐·축소되었다는 고발이 시민쪽에서 제기되었다。고문경관들과 가족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터져 나오자 치안당국은 허둥지둥하며 은폐·축소에만 열중하였다。조작의 주역은 치안본부의 최고책임자가 거의 망라되었다。당시 姜致昌본부장과,그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朴盛源차장등 4차장이 관련자로 떠올랐고 이들은 서로 발뺌하기에 바빴다。

저 6월항쟁과 「6·29선언」의 도화선이된 朴鍾哲군의 고문치사는 은폐·축소지향의 수사로 쏘디쓴 의문을 남겨놓았다。그렇다고 진실이 망각으로 지워질수는없다。또한 그래서도 결코 안된다。당시 부검의인 황적준박사는 경찰수뇌부가 모든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 단순한 「쇼크死」로 해달라고한 협박사실을 온천하에 폭로했다。아울러 사건당시 담당 검사인 安商守변호사도 검찰수사가 외부압력에 손발이 묶여 수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밝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치졸하고 비열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제 정신인지 아닌지 공권력의 두뇌구조와 양심성이 의심스럽기 한이 없다。권력은 무법·탈법을 자행해도 감히 누가 건드리겠느냐는 불손이 아니고는 있을라야 있을수없는 일이다。파렴치한 당사자인 경찰도 그렇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외부압력에 숨도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이래서야 어떻게 무질서와 나라의 기강해이,나아가서 나라의 신뢰성과 도덕성의 파괴를 막을수 있겠는가。

이제 이 사건을 일시의 분노로 진정시킬수는 없다。만의 하나 또한번 「망각의 처방」에 기대한다면,그것은 놀라운 판단착오일뿐 아니라 걷잡기힘든 저항을 불러 일으킬것임을 심각히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시대변화의 흐름 탓인가,검찰이 관련 경찰수뇌의 재수사에 착수했다。당연하면서도 막연한 공허감을 느끼게 한다。뿌리는 못건드리고 가지만 흔들다 끝내버리지 않을까하는 종래의 타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안된다。그대로 넘길일이 아니다。먼저 고문치사와 은폐 당사자인 경찰은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 진상규명의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말아야한다。그래야 엄정한 형사소추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다。이 사건은 쉽게 형사책임으로 종지부를 찍을수 없는 것이다。특히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개입했다면 정치적인 차원의 책임추궁도 불가피하다고 믿는다。있을수 없는 과오니,안보상의 문제이니 하는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새정부의 안정과 정권안보를 위해서도 집권당은 책임을 돌리거나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불길이 번질것만 걱정하지말고 불씨의 제거에 비장한 각오를 보여야 한다。정통성과 도덕성의 결함이 정부에 얼마나 힘겨운 부담을 안겨주었는가를 생생한 경험을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진실앞에 굴복하고 겸허하게 대처하는것이 정치권력 운용의 요체인 것이다。

◇오열하는 母情 고 朴鍾哲군 1주기를 맞아 14일 서울지역 10개 대학 생들이서울대교내에서 가진 추모제에서, 朴군의 어머니 鄭且順씨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鄭씨의 왼쪽은 형 鍾宮씨. <사진=徐摹珠기자>

15전국大学 朴군 추모제

서울大등서 격렬 시위

1988년 1월 15일

고 朴鍾哲군 1주기를 맞은 14일 전국 23개대학과 사찰 등에서 학생 등 5천여명이 추모제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등 서울지역 10개대 학생 3천여명은 오후 2시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朴군의 어머니 鄭且順씨(55) 형 鍾宮씨(30) 등 가족과 文益煥민통련의장 桂勳梯씨 등 재야인사, 朴燦鍾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가졌다.

조사실로直行…徹夜신문

검찰, 姜 前본부장 소환 「변경 설득」 집중추궁

1988 1. 15 한국

"剖檢醫 만난일 없다" 否認

黃박사" 소견서 고쳐 3가지로 작성"

당시 警察수뇌들 모두소환 방침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이 소환됨에따라 경찰수뇌의 朴鍾哲군 사인조작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청사는 긴박한 분위기에싸였다.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3일밤 부검의사 黃迪駿박사(42·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를 참고인자격으로 철야조사한데 이어 「공개된 일기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진술을 듣고 14일하오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수뇌진의 부탁과 요청에따라 黃박사가 부검소견서를 두차례고치고 3가지를 작성했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밝혀내고 하오1시 尹亨鎭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소환했으며 하오4시20분 黃박사를 재소환, 사실여부를 재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姜전본부장이 도착하자 별도신문을 벌인다음 姜·黃·尹3자 대질형식을 통해 姜전본부장의 혐의사실을 집중추궁했다.

姜전본부장은 이날 신문에서 「黃박사의 진술과 일기장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당시 처음에는 쇼크사로 보고받았으나 부검결과가 나온뒤부터는 자체수사를 시켜 고문경관을 구속토록 하는등 구체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黃박사를 직접 만난일은 없다」고 朴군사인 조작강요사실을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朴處源전5차장, 朱炳德당시 4차장(현해경대장), 李敬祚3차장, 劉吉鐵전2차장(퇴직) 등 사건당시 경찰수뇌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환, 朴군의 사인을 쇼크死로 변경할것을 黃박사에게 부탁·요청했는지 여부를 중점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부검소견서를 두차례 고치고 3가지나 작성했다는 黃박사의 진술을 확인키위해 尹소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부검소견서 작성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尹소장은 검찰에서 「黃박사와함께 경찰수뇌들로부터 감정소견서변경을 설득받은사실이있으며 黃박사가 이를 부쳐 고민했었다」며 黃박사의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黃박사는 13일밤의 철야조사에서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부가 쇼크死로 해주도록 요청·부탁했으며 이에따라 부검소견서를 ▲사실대로 경부압박질식사로 밝힌것 ▲일부구타부분을 삭제한것 ▲외상(外傷)부분을 삭제한것등 3가지로 작성했었다고 진술했다.

黃박사는 특히 당시 경찰최고간부들이 부검소견서를 조작하도록 「협박·회유했다는 본도는 사실과 다르며 일기장에 적힌대로 「부탁·요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진술했다.

철저搜査 하겠다

李種南 검찰총장

李種南검찰총장은 14일 朴鍾哲군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을 국민이 납득할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李총장은 이날 民主黨 朴鍾哲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진상조사단(단장 睦泰稙의원)의 방문을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사건 수사를 위해 담당수사팀의 격상교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安商守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조사할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民主黨진상조사단은 이날 李총장을 방문,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지난해 2차은폐사건을 답답했던 수사팀을 격상 교체할것 ▲당시의 검찰책임자와 관계기관대책회의참석자도 수사할것 ▲安商守변호사를 소환할것등을요구했다.

◇"조사받으러" 姜玟昌 전치안본부장이 朴鍾哲군 사인은폐조작여부를 조사받기위해 14일하오 검찰에 소환됐다. 【翟圭成기자】

姜 前치안본부장 직무유기죄 해당

辯協 진상조사단 聲明

대한변협인권위원회 故朴鍾哲군사건 진상조사단(단장 柳鉉錫변호사)은 14일 검찰의 朴군사건 재수사와 관련 성명을 발표,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의 행위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구성함에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은 은폐책임자전원을 즉각 구속, 사건전모를 규명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人權유린 영원히 추방

기독교敎會協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등 소속3개단체는 14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1주기를 맞아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이나라에서 고문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영원히 추방하기위한 결의를 다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1960. 1. 15
동아

姜 前治安本部長 구속검토

檢察

朴군 死因조작사건 허위剖檢書작성 관여 증거수집

고 朴鍾哲군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과 관련, 검찰의 출두요청을 받은 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이 14일 오후 4시55분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속보=검찰수뇌진의 朴鍾哲군고문치상은폐조작사건관련여부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부장金慶會검사장)는 14일오후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을 소환, 黃遇駿부검의와 尹重錫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과의 3자대질등 철야조사를 벌였으며 15일중으로 姜전본부장에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姜전본부장이 朴군사인은폐조작기도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부검의 黃遇駿박사와 尹重錫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있는 사실로미뤄 姜전본부장에대한 구속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慶會중수부장은 15일 姜전본부장이 黃박사의 진술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단」며 「姜전본부장의 신병을 계속 확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金중수부장은 朴處源전5차장 朱炳德당시4차장(현해경대장)李敬祚3차장 劉吉鍾전2차장등 朴군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찰수뇌들에 대한 추가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는 소환계획이 없다는 말해 姜전본부장과 黃박사등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소환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姜전본부장은 부검의 黃박사에게 사인조작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16일 朴군의 사인을 발표할때 黃박사가 작성해준 1차부검소견중에서 「타박상을 빼고 피멍과 찰과상을 넣으라」고 했다는 黃박사의 진술에대해 姜전본부장은 「당시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불확실한것을 밝히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사인을 은폐하려했던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1월 姜전본부장이 朴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팀이 사인은폐조작기도사실을 부인하고있는 사실로미뤄 姜전본부장에대한 구속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檢察수뇌 조사

한편 검찰은 14일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 2차 검찰수사과정에서 검찰의 朴군사건 은폐조작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검찰수사팀이 이를 묵인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의부의 압력때문에 검찰이 朴군고문치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安商守변호사에게 금명간 자진출두를 요청한 사실과 당시의 검찰조사상황에 대한 安변호사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姜玟昌전본부장 徹夜신문

고문致死 大檢, 黃박사등과 対質… 진술 엇갈려

1988 1 15 조선

오늘 오전 拘束여부 결정

科搜研소장 "黃박사日記 거의 사실" 확인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4일오후 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을 검찰청으로 소환, 朴군의 사인조작부분에 대해 참고인으로 부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尹重鋼소장,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와 대질신문하는등 철야조사했다.

이날조사에서 姜전본부장은 부검의사 黃박사에게 사인조작을 강요한일이 없으며 당시자신은 부검을 하지않겠다는 朴군가족을 설득, 경찰병원이아닌 제3의 병원에서 부검까지 실시해 사건전모를 발표한뒤 물러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姜 전본부장의 혐의사실이 드러날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와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등을 적용, 구속할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姜전본부장에대한 신병처리 방침이 15일 오전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姜전본부장은 지난해 1월16일 朴군의 사인을 발표할때 黃박사가 작성해준 1차부검소견 중에서 타박상을 빼고 피멍과 창과상만 넣으라고 했다는 黃박사의 진술에 대해 『당시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기전이라 자세한 사인이 드러나기전까지 불확실한것을 밝히는게 좋지않다는 생각에서였을뿐 사인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姜전본부장은 趙漢慶경위등 2명의 구속사실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지난해 1월18일 사건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黃박사에게 겁부압박에의한 질식사대신 익사나 쇼크사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부탁했다는 黃박사의 진술에 대해 『익사나 쇼크사의 가능성도 있지않겠느냐는 개인 소견을 말했을 뿐 黃박사를 회유하거나 압력을 넣어 이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이들의 진술내용이 엇갈리자 이날밤 11시15분쯤 3차대질신문을 잠시중단, 姜전본부장과 黃박사간에 엇갈리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캐기위해 분리신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姜전 본부장이 사건과 관련해 행한 발표와 그밖의 발언내용을 다시 파악키위해 당시 발표에 관여했거나 측근에 있던 치안본부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방증자료수집을 병행했다.

姜전본부장에 대한 철야신문이 진행된 이날 대검중앙수사부 수사진40여명은 12층 각사무실의 불을 환히 밝힌채 수사진척상황 파악과함께 수사료 수사관회의를 가졌고 중수부3과는 적용법률연구와 관례수집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질은 회색 실을 정장차림으로 이날 오후 4시55분쯤 토알실등 승용차를타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姜전본부장은 간간이 미소를 띄지 않았으나 굳은 표정이었으며, 黃박사의 일기장내용이 사실이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검찰內査도 착수

大檢, 安商守변호사 곧 소환

대검은 14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 검사 安商守변호사가 「검찰이 외부압력으로 윤폐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데대해 조사하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朴군부검의사 黃迪駿박사와 安변호사의 증언이후 재수사가 진행되고있으나 安변호사가 밝힌 검찰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여부및 이와관련된 의문점들이 명확히 규명되지않는한 수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기어렵다는 여론과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黃박사와 安변호사의 증언이후 朴군사건 수사결과에대한의혹이 되살아나고있고, 미진부분에대한 소명요구가 많음을 알고있다』면서 『차제에 검찰자체의 과오를 포함, 모든 진실을 가린다는 차원에서 재수사에 임할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이어 『朴군사건재수사를말은 대검 중앙수사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조만간 安변호사를 소환수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수뇌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安변호사가 그와같은 발언을 한 이후 한번도 접촉하지 못해 증언의 정확한 내용과 진의를 파악할 수 없으나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속각 처벌촉구 辯協 진상조사단 声明

대한변협인권위 고 朴鍾哲군사건진상조사단(단장 柳鉉錫변호사)은 朴군사건 재수사에대한 성명을발표, 『범행 축소조작 은폐기도에는 朴處源치안감이오에 당시 안기부 고위간부였던 인사도 깊이관여한 흔적이 있고 검찰 또한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믿고있다』며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姜玟昌 전치안본부장등의 행위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구성함에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당시 사건수사 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가 밝힌 검찰상부의 압력이란 무엇이며 「관계기관회의」의 정체, 참석자의 구성및 회의내용과 결정사항을 모두 공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教会協 3단체 고문致死 1주기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소속 3개단체는 14일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1주기를 맞아 성명을 통해, 『모든국민들은 이나라에서고문을 비롯한인권유린을 영원히 추방하자는결의를 새롭게 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88.1.5/6/8

檢察 「외부압력」 끝내 못밝혀

朴鍾哲군사건 「새 眞相」규명보다 飛火막는데 주력 인상

某機關간부 「회유」도 조사안해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발생 1년을 맞아 발췌된 당시의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와 사건초기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새로운 증언을 계기로 검찰이 이 사건의 세번째수사에 나서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을 구속수감하는등 경찰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묻는 수사를 벌였으나 경찰관련부분에 대해서만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해 이 사건을 둘러싼 일반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이사건 재수사를위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金慶會대검중앙수사계장의 지난 16일 수사결과발표 내용은 『검찰수사에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安변호사의 새로운 증언을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부인하고있어 검찰자체조사와 「외부압력」에 대해선는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검찰은 더우기 경찰수뇌의 이사건은 폐 조작압력을 받은 黃박사를 참고인으로불러 조사하면서 마치 혐의자를 다루듯 『영등포서리에서 일기장을 공개한것 아니냐는등 「외부압력」과 관련, 申昌彦부장검사 安商守변호사 朱炳德전치안본부4차장 (현해경대장)등에 대한 수사장소 시간 진술내용등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金慶會수부장은 이번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安변호사가 「외부압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安변호사는 지난11일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법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수사팀이 수사계획서를 만들어 올렸으나 검찰은 외부압력으로 손발이 묶여버렸다』고 증언했었다.

또 金慶會수사부장의 발표는 △당시1차수사를 경찰에 한 추가수사가 아닌것으로 보고 이를 미루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5월29일 대검중앙수사부의 재수사결과 발표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고문경찰관 2명의 주장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사실관계와 호소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유동적이었으며 중범을 두려워하는 피고인들의 심적동요현상을 가능성이 있어 보적적인 수사착수를 미루어왔다』고 설명했었다.

金慶會수사부장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이전 검찰의 지난5월 재수사발표내용과도 엇갈린 것으로서 『검찰이 상황에 따라 적당히 둘러대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있다.

또 대한변협진상조사단에서 『모기관간부가 機政府교도소로 이감된 趙漢慶경위등을 면회, 「확실한 보장을 해주겠으니 진상을 공개하지말라」는 회유했다』고 밝힌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종결됐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미진은 수사능력의 한계보다는 이사건의 불똥이 검찰과 정치권력쪽으로 튀는것을 막기에 급급한 임기응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趙英來변호사는 『검찰이 한 사건을 놓고 세번씩이나 수사를 벌이면서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지않고 국민이 어느정도 아는 사실조차도 미봉책으로 덮으려는것은 민주화로 가자단면서도 구시대적 행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洪性宇변호사는 『참고인을 불러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피의자처럼 다룬 행위는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몰인정한 수없는 작태라면서 『이런태도로는 새정부에서 약속하는 인권상황의 개선도 공염불이 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黃鎬澈기자〉

"剖檢소견서 두차례 修正지시"

조선 1988. 1. 16

大檢, 姜전본부장 직무유기 결론

어젯밤 連行하루만에 收監

다른警察간부 필요땐 召喚

姜전본부장 "不德한 탓…修養하겠다"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재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는 15일밤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연행30시간만에 전격 구속했다.

姜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오후10시40분쯤 姜信旭대검중수부2과장에의해 청구됐으며, 서울형사지법李根潤담당판사가 오후 11시55분 발부했다.

姜전본부장은 이사건과 관련, 14일 오후4시55분 연행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날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기도 시흥서울구치소에수감됐다.

金慶會 중앙수사부장은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姜전본부장은 朴군부검의사 黃迪駿박사가 지난해 1월16일 오전으로 예정된 姜전본부장의 기자간담회에 대비, 작성 제출한 부검소견서중 『외상부분이들어가면 국민들로부터경찰이朴군을 구타사망케했다는 지탄을 받을우려가있으니 외상이 없는것으로 메모를제출하라』고 두번에걸쳐지시, 姜전본부장의 지시를 뿌리치지못한 黃박사가 메모를 2차례에 걸쳐 수정제출케해 결국 姜전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姜전본부장은 또 지난해 1월15일 오후10시30분쯤 黃박사로부터 외피및 내경소견상 고문치사의가능이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듣고 지체없이 부검의사의 부검소견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간은 조치를 취하지않고 쇼크사로 소견서를 고쳐 작성토록 묵묵,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黃박사가지난해1월16일에있은姜전본부장의기자간담회용으로고쳐작성제출한 부검소견서를증거물로수사기록에 첨부 했다. 金중수부장은 姜전본부장의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朱炳徳담시 치안본부4차장(현해경대장)에대해 조사한결과 혐의사실이 충분히입증됐다고밝혔다.

염장이 발부된 직후 姜전치안본부장은 소감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업보로 생각하고 수양하겠다』는 『죄송스럽다』고 말한뒤 수사관3명과함께 대기한 서울2러8013호 스텔라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14일오후 朱전4차장을 소환, 姜전본부장의 혐의사실에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朱전차장이 지난해 사건담시 치안본부장의 참모로서 姜전본부장이사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걱정만했을뿐 모든지휘와 최종결정은 姜전본부장이 했기때문에 현재로선 朱전차장에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姜전본부장에 대한 보강자료가 더 필요할경우 朱전차장외에 당시의 다른차장들도 모두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인권 오후 安藺守변호사를 서울시내모처로 불러 朴군사건과 관련한 사항들을 들었다.

이날 검찰주변에는 한때 姜전본부장에 대한 수사진전이 없어 신병처리가 16일로 늦춰질것같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오후늦게 李稙南검찰총장이 회의를 주재, 서류를 검토하면서 구속설이 나돌았다.

한편 검찰에소환돼 참고인조사및 姜전본부장과 대질신문을받았던黃迪駿박사와尹重鎭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은 이날밤11시45분쯤 귀가했다.

한국 1988. 1. 16

對質신문 거듭…오늘새벽 收監

姜玟昌씨 拘束 검찰주변 "소견서 변경 두차례 직접지시"

◇15일밤 姜玟昌 전치안본부장이 수사관들에 이끌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姜전본부장은 浦一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權周勳기자】

朴鍾哲군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은 검찰수뇌가 처음부터 개입했던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5일밤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을 이틀연속 朴군부검의 黃迪駿박사와 대질, 사인은폐·조작 협의를 밝혀내고 전격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姜전본부장에대한 구속영장은 대검중수부 2과장 姜信旭부장검사가 신청, 이날밤 11시 55분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李根潤판사에의해 발부됐다。영장내용에 의하면 姜전본부장은 朴군의 부검이 끝난 지난해 1월15일 하오11시30분께 치안본부장실에서 부검의 黃迪駿박사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이며 외표내경 소견상 고문에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고 치안본부장으로서 지체없이 에따른 철저한 조사지시를 하는등 마땅히 해야할 직무를 져버리고 단음날인 16일 상오8시30분 기자간담회에서 진실한 사인을 은폐한채 부검사실을 왜곡 발표했다는것。

姜전본부장은 이후에도 黃박사에게 사인을 쇼크사로 해서 부검감정서를 작성할것을 묵무하면서 黃박사가 부검소견을 메모로 작성제출하자 『외상부분이 틀어가면 국민들로부터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지탄받을터니 외상이없는것으로 작성제출하라』고 2차례에걸쳐 지시했다。

검찰은 姜전본부장이 협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黃박사와 尹重鎭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진술내용및 黃박사의 일기장등 증거로 공소유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형법 1백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때 1년이하의징역, 3년이하의자격정지 1백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사람으로하여금 의무없는일을 하도록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때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하오 중수부 3과장 李明載 부장검사가 朱炳德당시 4차장 (현 해경대장) 윤소환, 시내모처에서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못해 귀가 시켰다。

金慶會중수부장은 이날밤 당시 치안본부차장들의 관련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당시 차장들은 본부장의 참모로서 본부장이 의견을 묻어 갈이걱정했을뿐 모든의사결정은 본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며 『나머지 관련경찰간부들도 적절한시기에 모두소환 조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중수부장은도 『姜전본부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끝난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수사를 진행,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수부 1과장 李銀江부장검사는 이날 하오 당시 수사검사였던 安廣한변호사를 시내모처로 소환, 신문인터뷰에서 『외부의압력으로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못했다』고 밝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발언경위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온 黃박사와 尹소장은 이날 하오11시40분께구가조치됐다。

姜전본부장의 구속으로 이 사건관련보속자는 고문치사건의 趙漢慶경위, 姜鎭圭·潘金坤경사, 李正鎬경장(상고심 계류중), 은폐·조작사건의 朴處源치안감, 劉井邦·朴元澤경정(1심진행유예석방, 2심계류중)에 이어 모두9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중수부수사팀은 하오6시께 姜전본부장의 구속발표를 최종결정한뒤 하오8시께부터 자술서를 토대로 문답절차 자술서를 작성, 하오10시45분께 법원당직실에 영장을 접수시켰다。

서울형사지법 李根潤판사는 1시간가량 기록을검토한뒤 하오11시47분께영장을발부했다。

姜전본부장은 영장이 발부된 즉시 12층 조사실에서 3명의 수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나와 보도진들의 카메라플래시세례속에 미리대기시켜놓은 서울2러8013호 스텔라 승용차 뒷자석에 태워져 경기始興郡義旺邑浦一里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姜전본부장은 이틀간의철야조사로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이었다。

姜전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업보로생각하고 수양하겠다』고 대답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내용

피의자는 86년1월9일부터 87년1월21일까지 치안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치안본부의 수사등 각종직무를 충실 지휘했던자임 ①87년 1월14일 상오10시50분 서울龍山區葛月洞98의 1 치안본부 대공2부 제9호 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서울大언어학과3년 朴鍾哲군이 사망한 사건이발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黃迪駿이 15일하오9시5분부터 10시25분까지 사이에 부검을 실시하고 11시30분 본부장실에서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일뿐아니라 외표소견상이나 내경소견상으로도 고문에 의한 사망일가능성이 충분한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고 고문으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등 응분의 조치를 지시할 직무상의무가 있음에도 1월16일 상오8시30분 신문기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사인을 은폐한채 부검사항을 발표하고 黃迪駿에게 사인을 쇼크사로해 부검감정서를 작성토록요구, 1월17일하오1시까지 부검소견에 따른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방치해 정당한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했고 ②87년 1월15일하오11시30분 치안본부장실에서 黃迪駿으로부터부검소견을보고받고난뒤 16일상오8시30분께 예정된 기자간담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검 소견에 관한 메모 작성을 지시, 다음날 새벽3시 黃이 외표소견으로는 ▲코와 입부분에 표피 박탈 ▲둔부 좌측 외부에 표피박탈 ▲좌측 무릎에 표피박탈 ▲우측손등에 피하출혈로, 내경소견으로는 ▲경부좌우측에 피하출혈 ▲흉부우측에근육간(間)출혈 ▲흉골 하단에서 수평으로 근육간출혈 ▲전후두엽에서 피하출혈 ▲우폐하엽하면에서 출혈반으로메모내용을작성해제출하자 외상부분이 틀어가면 국민으로부터 구타하여 사망했다고지탄받게될터이니 외상이없는것으로 메모하여 제출하라고 2회에걸쳐 지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운영·감독 권한을 가진 피의자의 지시를 거역하지못한 黃이 2회에걸쳐 수정하여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될수있는 부분을 빼고 외표 소견으로는 『사인불명한 특이한 소견을보지못함』으로, 내경소견으로는우측폐장에서 출혈반 소견이 인정된』으로 단순하고 막연하게 자기소신에반하여 기재한 메모지를 작성, 제출케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일을 행하게한 것이다。

1988 1.16 한국

姜玟昌씨(前治安本部長) 구속

職務유기·職權남용 혐의

검찰, 오늘 中間수사결과 발표

朴군사건再搜査

경찰수뇌진의 朴鍾哲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관련 여부를 재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부장金慶會검사장)는 15일밤 姜玟昌전치안본부장(55)을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구속, 16일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관련기사1면

검찰은 이날간 姜전본부장과 부검의 黃迪駿박사, 尹重鎭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대질신문한결과 姜전본부장이 黃박사에게 朴군사인을 쇼크사로 감정서를 작성해줄것을 요구했고, 부검사실을 왜곡발표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16일상오10시 이사건의중간수사결과를발표할 예정이다.

동아 1.16 88.1.16

姜玟昌 前치안본부장 拘束

오늘새벽收監

朴君사건 再搜査

"剖檢소견 수정지시 職務유기"

관련간부 계속調査…安변호사 소환

朴鍾哲군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은 경찰수뇌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검중앙수사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5일밤 姜玟昌전치안본부장(55)을 직무유기및 직권남용혐의로 전격구속, 수감했다.

姜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검중수2과 姜信旭부장검사가 15일밤 10시40분경 청구, 서울형사지법 당직판사인 李根澗판사에게 1시간여의 기록검토를 거쳐 이날밤 11시55분경 발부됐으며 姜전치안본부장은 16일새벽 0시반경 京畿도始興군蘇旺읍浦一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6면에 관련기사>

姜전치안본부장은 이사건과 관련, 14일 오후4시55분 검찰에 출두, 15일 밤10시반경까지 철야로 29시간여에걸쳐 조사를 받았다.

金慶會중수부장은 15일밤수사결과를 발표, 「姜전치안본부장이 朴군고문치사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월15일밤 11시반경 치안본부장실에서 부검의 黃迪駿박사로부터 「사인이 결핵압박에의한 질식사일뿐아니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고도 이를날인 16일오전8시반경 사인을 은폐한채 부검내용을 발표했으며 17일낮 1시까지 부검소견에따른 진상조사지시를 하지않고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金대검중앙수사부장은 「姜전부장의 구속으로 일단 수사는 마무리 된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金부장은 「그러나 당시 치안본부수뇌부에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할것이며 姜전본부장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검찰이 외부압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당시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를 15일오후7시반경 시내 모처로 불러 참고인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安변호사에게 범인축소조작사실을 알게된뒤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한 경위등 당시수사상황에 대해 조사한것으로 알려졌다.

金부장은 「사건당시 주임검사였던 申昌彦부장검사와 安商守변호사에대해 15일 오후 각각 조사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2월말현인 더있다는 사실을 알고도검찰의추가수사가 지연된것은 趙漢慶 姜銀圭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건수사를 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발생했으며 당시 정치사회상황이 어수선해 재수사를 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판단,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申부장은 지난해3월5일 趙 姜의 진술내용에관한 의견, 추가수사계획등을 메모해 서울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것.

한편 「安변호사는 사건당시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주임검사인 申부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수사가 지연된 이유와 초동수사를 결찰에 맡긴 이유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金중앙수사부장이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朱炳德 당시 치안본부4차장은 사인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姜전본부장은 수감되기에 앞서 「업보로 생각하고 수양하겠다. 죄송스럽다」고만 짧막히 말했다.

한편 검찰은 姜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黃迪駿박사와 尹重鎭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귀가시켰다.

수감 建경위 찾아가 甘米機關 간부가 회유

"마음놓고 말할 때 말하라는 것"

辯協조사단

동아 1988.1.16

「간첩 및 이북방송」 관련 수감자 이씨(가명)는 지난 1월 8일 서울 구치소 내 변호사 접견실에서 변호사 김모씨와 면담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건설부 직원 김씨(가명)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3시간 가량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이제 나가서 할 일이 많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동아 1988.1.16 수감자 가족 회유 의혹 제기

辯協조사단 "간첩 및 이북방송" 관련 수감자 이씨 주장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이씨가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이북의 실정을 보고 돌아와 이북의 실정을 남한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姜씨외 더이상 처벌없다"

중앙 1988 1.16

大檢,朴鍾哲군 사건 再搜査결과 밝혀

檢察엔 外部압력 없었다

警察믿고 初動수사 맡겨

拘置所 호송 구속수감되는 姜玟昌전치안본부장. 朴鍾哲군 사인조작과관련, 철야조사를 받아오던 姜玟昌당시 치안본부장이 15일밤11시4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張南源기자>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재수사해온 金慶會대검중앙수사부장은 16일 당시의 수사를 맡았던 申昌彦부장검사(현서울고검검사)와 安商守변호사(당시 주임검사) 등 2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검찰수사과정에 외부압력은 없었으며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것은 경찰이 책임지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송치하겠다고 다짐하는데다 당시 판단으로 범인과 사망원인이 모두 밝혀져 수사에 잘못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金중수부장은 또 申부장 검사·安변호사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범인축소조작 사실을 알고선도 수사착수가 늦어졌던 것은 당시 사회·정치상황이 朴군 49재·추모행사·택시기사들의 대규모일금인상투쟁시위·대학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해 수사착수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당시 검찰간부들의 직무유기부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金중수부장은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이사건수사는 마무리됐으며,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계속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무엇이든지 수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金중수부장이 밝힌 朴군사건의 조사내용.

◇姜전본부장 수사내용

—姜전본부장이 혐의내용을 시인했나.

▲지난해 1월16일상오 기자간담회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인조작의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黃迪駿박사등의 진술과 엇갈려 이를 토대로 구속했다.

—구속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피력해왔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충격을 준데다 그동안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컸던만큼 철저히 파헤쳐 범죄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누구라도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朱炳德치안감등 다른경찰간부의 처벌은.

▲이들은 적극적 가담행위가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安商守변호사 조사내용

—외부압력부분은 무엇인가.

▲수사팀의 일원으로 주임검사(申부장)를 보좌했으므로 신문에 난데로 외부압력이나 기타 대책회의 결정유무등에 대해 아는바 없다.

—부검후 朴군사망원인확인뒤의 조치는.

▲부검의 黃박사에게 확정적 감정서가 나오기전에는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소견을 경찰관계자에게 발설치 말도록 당부했다.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이유는.

▲사체부검을 지휘하고 범행현장수변상황에 대해 내사만 담당하면 검사로서 이사건을 경찰에 맡기기보한 과정에 참여치 못해 상세한 이유를 알수없다. 그러나 추후 소속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바는 있다. 다만 수사를 넘겨준 대신 주임검사와 申부장으로 지정하고 나와 李承玖검사를 수사팀으로 하여 경찰초동수사를 감독키로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외에 공범혐의인여부·추가수사지연여부·송치5일만에 기소한 이유등에 대해서는 申부장의 진술과 같았다.

서두른 搜査중결 불씨남겨

朴군事件재수사 배경과 미비점

검찰권행사「外風」작용 규명못해

安변호사 증언 眞僞여부 따져야

在野법조계 "當時관련자 모두 조사" 주장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만1년만인 15일밤 당시 경찰총수이던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이 전격구속됨으로써 朴군사건은 또 하나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검찰수사는 朴군1주기를 앞두고 당시 경찰수뇌가 朴군사인조작은폐에 개입했고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수없었다는 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일기장과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이 새로나와 보도(12일자 東亞日報)됨으로써 재착수됐다。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이 朴군고문치사은폐조작에관련한사실을 이사건에 대한세번째 수사에서 밝혀낸 셈이다。

이와관련,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왜 1, 2차 수사과정에서 朴군사건에대한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이같은 일이 검찰수사력의 부족에서 연유한것인지 아니면 검찰권행사의 한계 탓이었던지가 차제에 분명히 가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또 朴군사건과 관련한 또다른 의문이 아직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3차수사가 姜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종결지워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姜전본부장의 구속으로 朴군 고문치사조작 은폐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고있다。

검찰은 이번수사에서 姜전치안본부장을 전격 구속하며 사인은폐조작기도에 대한사실확정」과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죄의 법조항 적용에 모두 어려움을 겪은것으로 알려졌다。

金慶會대검호수부장은 姜전치안본부장의구속진행직후 「사실확정과법조용 모두어려웠다」며「구속영장청구직전까지 적용법률의 해석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고 실토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姜전치안본부장의 朴군사인 은폐조작기도가 미수에 그쳤기때문에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직무유기죄의 적용이 어렵다는의견도 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 姜전치안본부장이 고문치사의 가능성을 알고도 즉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않았던 사실 자체가 직무를「계속」유기한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직무유기죄를 적용,姜전치안본부장을 전격 구속하게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야법조계에서는 姜전치안본부장의에 당시 경찰수뇌들의 朴군사인은폐조작기도혐의에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할뿐 아니라 사건당시 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가 밝힌 증언의 사실여부확인에도 철저한 수사력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을 일단 마무리지을 방침으로 있어 朴군사건「진상전모」에 대한 또다른 논란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曺炳來기자〉

姜致昌씨 무죄주장

신병관결 불복抗訴

朴鍾哲군 사인조작기도사건과 관련,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姜致昌 전치안본부장(55)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 17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朴군사건 재수사 檢察발표 내용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의 구속배경=정부는 그동안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척결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이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의혹이 컸던 만큼 철저히 파헤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이에따라 검찰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않겠다는 의지아래 수사에착수, 姜전본부장이 비록 朴군사건의 책임을지고 나갔지만 구속하게됐다。姜전본부장은 지난해 1월15일 부검후 본부장실에서 曺迪駿박사를 만난것등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등의 犯意는 부인하고 있다。

◇그외 경찰간부들에 대한 처리방침=당시 치안본부차장 이 보좌관과 같이 사건처리 문제를 두고 검정했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수없다。모든것이 본부장의 책임아래 이루어졌으며 이사실은 朱炳德당시4차장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申昌彦부장검사(46·당시 서울지검형사2부장) 조사 내용。▲초동조사를 경찰에 맡긴 이유=사건직후安商守·朴商玉 검사로 수사팀을 조직했으나 경찰측에서「경찰이 책임지고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 송치하겠다」고 다짐하며 강청해왔다。당시 판단으로는 범인과 사망원인이 모두 밝혀져서 경찰에 수사를맡겨도 별로 잘못돼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정식현장검증을 안한 이유=구속된 범인2명이모두자백했고 부검결과 사인이 분명히 규명돼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대공수사단내에서의 현장검증은 대공경찰의 사기문제도 있어 실황조사만으로 대치했다。

▲송치5일만에 전격기소한 이유=사건송치전부터 검사가 직접 경찰에 나가 수사지휘했고 송치후에도 교도소에가 철야수사, 공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규명했다。이 사건의 특수성과 고조된 여론을 감안할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범3명이 더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경위와 조치=지난해 2월말께 趙漢慶경위등이 교도관을 통해 검사면담을 요청, 2월27일과 3월4일 각각 姜검사와 申부장검사가 면담, 「공범이 3명 더있다」는 진술을 청취, 확인했다。3월5일 면담내용 진술의 진부에관한 의견, 추가수사계획을메모, 鄭銖永검사장에게 전달했다。

▲축소조작수사의 지연이유=趙경위등이 진술을 번복, 성공적인 사건수사를 하기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져 직무유기의 는인정되지 않으며, 申검사 安변호사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외부압력」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金慶會대검호수부장은 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검찰에 맡긴 것은 당시 범인과 朴군의 사인이 밝혀져 경찰에 맡겨도 잘못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데다 경찰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하고 간청, 4·19시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검찰발표에 대해 趙경위 등에선 「검찰직접 수사, 검찰에 맡기기를 간청한 것은 사건을 축소조작하려는 의도였다」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의 규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金昌國변호사(서울변협부회장)는 「3번째가 되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고조된 여론을 감안할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申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며 「거론되고 있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외부압력의 실체등이 명백히 밝혀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1988

사건처리 문제를 두고 검정했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수없다。모든것이 본부장의 책임아래 이루어졌으며 이사실은 朱炳德당시4차장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申昌彦부장검사(46·당시 서울지검형사2부장) 조사 내용。▲초동조사를 경찰에 맡긴 이유=사건직후安商守·朴商玉 검사로 수사팀을 조직했으나 경찰측에서「경찰이 책임지고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 송치하겠다」고 다짐하며 강청해왔다。당시 판단으로는 범인과 사망원인이 모두 밝혀져서 경찰에 수사를맡겨도 별로 잘못될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정식현장검증을 안한 이유=구속된 범인2명이모두자백했고 부검결과 사인이 분명히 규명돼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대공수사단내에서의 현장검증은 대공경찰의 사기문제도 있어 실황조사만으로 대치했다。

▲송치5일만에 전격기소한 이유=사건송치전부터 검사가 직접 경찰에 나가 수사지휘했고 송치후에도 교도소에가 철야수사, 공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규명했다。이 사건의 특수성과 고조된 여론을 감안할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범3명이 더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경위와 조치=지난해 2월말께 趙漢慶경위등이 교도관을 통해 검사면담을 요청, 2월27일과 3월4일 각각 姜검사와 申부장검사가 면담, 「공범이 3명 더있다」는 진술을 청취, 확인했다。3월5일 면담내용 진술의 진부에관한 의견, 추가수사계획을메모, 鄭銖永검사장에게 전달했다。

▲축소조작수사의 지연이유=趙경위등이 진술을 번복, 성공적인 사건수사를 하기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져 직무유기의 는인정되지 않으며, 申검사 安변호사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외부압력」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金慶會대검호수부장은 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검찰에 맡긴 것은 당시 범인과 朴군의 사인이 밝혀져 경찰에 맡겨도 잘못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데다 경찰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하고 간청, 4·19시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검찰발표에 대해 趙경위 등에선 「검찰직접 수사, 검찰에 맡기기를 간청한 것은 사건을 축소조작하려는 의도였다」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의 규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金昌國변호사(서울변협부회장)는 「3번째가 되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고조된 여론을 감안할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申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며 「거론되고 있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외부압력의 실체등이 명백히 밝혀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동아 88.1.16

서두른 搜査 종결 불씨남겨

朴군事件재수사 배경과 미비점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만1년만인 15일밤 당시 경찰총수이던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이 전격구속됨으로써 朴군사건은 또 하나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검찰수사는 朴군1주기를 앞두고 당시 경찰수뇌가 朴군사인조작은폐에 개입했고 검찰이 외부의 압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수없었다는 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일기장과 주임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의 증언이 새로나와 보도(12일자 東亞日報)됨으로써 재착수됐다.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이 朴군고문치사은폐조작에관련한사실을 이사건에 대한세번째 수사에서 밝혀낸 셈이다.

이와관련,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왜 1,2차 수사과정에서 朴군사건에대한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같은 일이 검찰수사력의 부족에서 연유한것인지 아니면 검찰권행사의 한계 탓이었던지가 차제에 분명히 가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또 朴군사건과 관련한 또다른 의문이 아직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3차수사가 姜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종결지워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姜전본부장의 구속으로 朴군 고문치사조작 은폐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고있다.

검찰은 이번수사에서 姜전치안본부장을 전격 구속하며 사인은폐조작기도에 대한 사실확정과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죄의 법조항 적용에 모두 어려움을 겪은것으로 알려졌다.

金慶會대검호수부장은 姜전치안본부장의구속집행직후 『사실확정과법적용 모두어려웠다』며 『구속영장청구직전까지 적용법률의 해석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고 실토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姜전치안본부장의 朴군사인 은폐조작기도가 미수에 그쳤기때문에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직무유기죄의 적용이 어렵다는의견도 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姜전치안본부장이 고문치사의 가능성을 알고도 즉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않았던 사실 자체가 직무를 계속 유기한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직무유기죄를 적용, 姜전치안본부장을 전격 구속하게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야법조계에서는 姜전치안본부장의에 당시 경찰수뇌들의 朴군사인은폐조작기도혐의에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할뿐 아니라 사건당시 검사였던 安商守변호사가 밝힌 증언의 사실여부확인에도 철저한 수사력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을 일단 마무리지을 방침으로 있어 朴군사건「진상전모」에 대한 또다른 논란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曺炳來기자〉

검찰권행사「外風」작용 규명못해

安변호사 증언 眞僞여부 따져야

在野법조계 "當時관련자 모두 조사" 주장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죄 사인조작기도사건과 관련,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姜致昌 전치안본부장(55)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 17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朴군事件 재수사 檢察발표 내용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의 구속배경=정부는 그동안 부검과 비리를 철저히 척결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이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의혹이 컸던만큼 철저히 파헤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않겠다는 의지아래 수사에착수, 姜전본부장이 비록 朴군사건의 책임을지고 나갔지만 구속하게됐다. 姜전본부장은 지난해 1월15일 부검후 본부장실에서 黃迪駿박사를 만난것등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등의 犯意는 부인하고 있다.

◇그외 경찰간부들에 대한 처리방침=당시 치안본부차장 리, 송치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청해왔다. 당시 판단으로는 불시 보류삭과 같이 사건처리 문제를 두고 격정했지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수없다. 모든것이 본부장의 책임아래 이뤄졌으며 이사실은 朱炳德 당시4차장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申昌彦부장검사 (46·당시 2부장) 조사 내용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이유=사건직후 安商守·朴商玉 검사로 수사팀을 조직했으나 경찰측에서 『경찰이 책임지고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청해왔다. 당시 판단으로는 없었다. 대공수사단내 현장검증은 대공경찰의 문제도 있어 실황조사 대치했다.

▲송치5일만에 전격 이유=사건송치전부터 직접 경찰에 나가 수사 고 송치후에도 교도소에 수사팀을 파견, 직접 조사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안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정식현장검증을 아유=구속된 범인2명이 백했고 부검결과 사인이 규명돼 공소유지에 벌인과 사망원인이 모져서 경찰에 수사를맡로 잘못될여지가 없다이 섰다.

1988 1.17

추가処罰 안하기로

"安변호사 外部압력 모른다 진술"

大檢, 朴군사건 종결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재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 金慶會부장은 16일 이사건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姜致昌전 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일단 책임문제는 규명됐다고판단돼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金부장은 『따라서 더이상 처벌대상자는 없으며,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金부장은 또 지난해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申昌彦 서울고검 검사와 安商守변호사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들이 범인은폐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사가 늦어졌던 것은 외부압력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시 朴군49재 추모행사, 택시운전사들의 대규모 일금인상투쟁 시위, 4·19위원 및 대학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 수사착수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金부장의 설명이었다.

金부장은 당시 검찰수사팀이 자체수사계획을 수립, 적절한 수사착수시기를 검토하는등 직무를 조기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직무유기혐의는인정되지 않으며, 申검사·安변호사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외부압력」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金부장은 또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은 당시 범인과 朴군의 사인이 밝혀져 경찰에 맡겨도 잘못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데다 경찰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다짐하고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검찰발표에 대해 재야법조계 등에선 「검찰직무유기」 부분등 이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규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金昌國변호사 (서울변협부회장)는 『3번째가 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朴군사건에 따른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거론되고있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외부압력」의 실체등이 명백히 밝혀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韓相震교수(사회학) 도 『이번 재수사는 공력의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는만큼 다시는 시중에 朴군사건을 두고 왈가왈부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충분한 사실을 밝혀야하나,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安商守변호사 조사내용=朴군사건수사팀에서 申부장 검사를 보좌했을뿐이며 신분면에 난것과같은 외부압력의 유무, 대책회의 결정등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부검후 범행현장 5관의 주변상황에대해 내사만 담당했던 검사로서 사건수사를 결정에 맡기기를 결정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상세한 이유는 알수없었다.

"姜씨외 더 處罰할 사람없다"

大檢, 朴군사건 再搜査결과 발표

1988 1.17 한국

朴鍾哲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을 재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慶會검사장)는 16일상오 이사건 수사발표를 통해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더이상 처벌할사람이 없다고 판단돼 이사건수사는 마무리 짓기로했다』고밝히고 『앞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으며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를 계속해 진상을밝히겠다』고 말했다。

金중수부장은 또 당시 수사를 맡았던 申昌彦 서울고검검사(46·전서울지검 형사2부장)와 安商守변호사(42·전서울지검형사2부검사) 등 2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외부압력이나 대책회의등에 대해 아는바없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수사팀의 직무유기혐의를 발견치못해 검찰자체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요지10面

이로써 지난 12일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의 일기장공개로 세번째 제기된 朴군사건수사는 착수4일만에 姜전보부장의 구속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姜전보부장의 전격구속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격과함께 의혹을 던져주었던 사건인만큼 철저히 파헤쳐 조금이라도 범죄가 인정된다면 누구라도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른것』이라며 『사건당시 검찰간부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차원에서 소환조사할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姜전보부장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원에서 엄격한 해석을 하고있어 지난82년 宣夢경찰서장의 전례대로 무죄판결이 내려지지않도록 기소만기일까지 충분한 수사를벌여 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발표의 상당부분을 검찰자체조사부분에 뒀는데 『朴군사건의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긴것은 경찰이책임지고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송치하겠다고 다짐해와 검찰자체적으로 결정한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고문범인이 3명 더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착수가 지연된것은 『당시의 정치·사회적분위기가 어수선해 즉시 수사를 착수하기에 적절치못하다고 판단, 시기를 보아왔던것』이라며 『검찰간부들의 직무유기부분은 혐의가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발표했다。

"새 事實 드러나면 搜査 계속 檢察엔 外部압력 없었다"

延大서 朴군 추모제

「故朴鍾哲군추모제」가 16일 하오2시 延世大 교내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유가족 시민 학생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拷問관련자 엄벌요구

정치범동지회 성명

한국정치범 동지회는 16일 水原여고생 피살사건등 시국의 자명모군(16) 에대한 경찰의 고문사건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벌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朴鍾哲군의 고문치사사건을 저지르고 이를은폐·조작·왜곡했던 경찰이 이에 대한국민감정이 채 가라앉기도전에 또 고문만행을 저질렀다』고지적, 『관련자를 엄벌하고 고문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鍾哲군사건 再再수사와 여고생살해용의자 고문사건

朴鍾哲군사건 再再수사와 주에터지나온 水原市雨西洞 여고생살해용의자 고문사건은 잘못된 경찰수사의 관행을 또다시 보여주었다。朴군사건의 세번째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두 사건의 유사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무지막지한 고문, 얄팍한 가증회유, 간교한 조작발표가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 수있을까。경찰은 이래저로 자진해서 가혹행위 발생사실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KAL機폭파테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맞춘 그시점과 내용 때문에 경찰의 「自供」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은 관이됐다。

이사건수사에서 경찰이취한 태도를 차례로 살펴보면 朴군사건의 교훈이 잊혀져왔고 「혜를 깎는 경찰의 自省」이 절박 한다는 점이 있음을 알게된다。

지난9일낮 明모군(16)이 사는 동네에 형사2명이 찾아와 『이동네에 한교만다니고 걸핏하면 한이들이 있느냐』고 물은뒤 다음날 조사할 일이있다며 明군을 임의동행형식으로연행해갔다。어머니는 그들의 소속과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明군은 12일에 경찰서정문을 들어서다 내의차림으로 실려나가는 소년을 목격했다。 예감이 불길해 면회를 신청했지만 그 소년은 明군이 아니라는 대답뿐이었다。 직접확인하기위해 도립병원으로 갔을 때에는 정문에서 막는 형사와 한동안 실랑이까지 벌인다음 그사이 경찰병원으로 옮겨지고없었다。

이들뒤 형사의 안내로 漢陽大병원에 갔을때 아들은 「혜를 깎는 경찰의 自供」이 결국 헛다짐이었음을 알게된다。

7일에는 유치장으로옮겨지는 바람에 면회할 수도 없었다。

부모는 12일에 경찰서정문을 들어서다 내의차림으로 실려나가는 소년을 목격했다。 예감이 불길해 면회를 신청했지만 그 소년은 明군이 아니라는 대답뿐이었다。 직접확인하기위해 도립병원으로 갔을 때에는 정문에서 막는 형사와 한동안 실랑이까지 벌인다음 그사이 경찰병원으로 옮겨지고없었다。

이들뒤 형사의 안내로 漢陽大병원에 갔을때 아들은 「혜를 깎는 경찰의 自供」이 결국 헛다짐이었음을 알게된다。

1988 1.17 한국

「自省」은 어디로

【鄭在鎬 사회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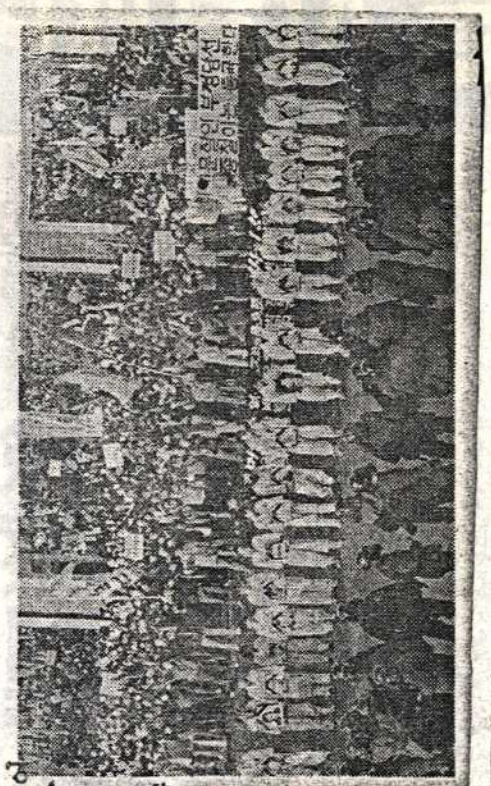
이번 사건이 터졌을때 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인권수사와는 거리가먼 경찰수사의 실상을 알게돼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이기회에 다시한번 경찰의 권위없는 자기반성과 자기혁신을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싶다。

고문치사 피의자 明모군(16)

고문치사 피의자 明모군(16)은 지난9일 하교길에 괴한이 나타나 『이놈이 맞다』고 외치자 달아나려고 발버둥쳤고 손발을 꽁꽁 묶인 채 피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그때 『우리가 다 책임지고 충분히 보상해주테니 일을 크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을 회유했다。

미성년자의 자였던 明군은 연약하게도 절도혐의로 구속된채 소생불능의 腦死상태가됐던것이다。 15일에 경찰은 수사중 발표차고 따귀를 한대때리고 몽둥이로 둔부와 발바닥을 4~5차례 때린것뿐이라고 발표했다。



부산 시내 대학생 스크럼 시위 이때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이때 시위 대열 속에는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부산 시내 대학생 스크럼 시위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타도」 외쳐

동아 29.4.18

4월 19일 부산 시내 대학생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시내 곳곳에 모여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시위 대열 속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교문과 전차 앞을 막아

부산 시내 대학생 시위 대열 속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시내 곳곳에 모여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1988. 1. 22 조선

「共産主義 도서」 대량 압수

체포-문초 계속 私淑 자술 부장 法 재판 검토

북한 당국은 지난 5일 평양 시내 주요 지역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여 이른바 「불온 서적」을 대량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압수된 책들은 『공산주의 원리』(김일성), 『사회주의 테제』(김일성), 『공산주의 문화 건설』(김일성), 『공산주의 교양』(김일성), 『공산주의 도덕』(김일성), 『공산주의 사회 건설』(김일성), 『공산주의 사회 건설』(김일성), 『공산주의 사회 건설

朴군사건 国調権발동싸고 대립

1988. 1. 22 조선

民主, 常委·선거법協商 불참키로

먼저 常委서 다룬뒤 論議 民正 즉각 発動요구 강경対応 民主

平民은 부분参席 결정

朴鍾哲군 고문치사 범인은폐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문제를 둘러싸고 与野협상이 진척을 보이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民主党이 자신들의 국조권 즉각발동 요구를 21일 民正党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 常委활동不参등으로 강경대응키로해 국회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民主党의 金氷三총재는 이날오후 金鉉圭총무등 간부들과 国調権발동여부와 국회운영 연계문제를 논의, 民正党이 국조권발동에 응하지않는다면, 우선 22, 23일 이틀동안 常委및 선거법협상에도 不参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강경대응을 배경으로 民主党의 李大淳총무와 이날오후 두차례회담을 가졌으나 民正党측이 「먼저 常委등에서 이문제를 다루나가는게 순서」라는 입장을 보인데따라 합의점을 찾지못했으며 民主党은 이에 睦堯相의원등 소속의원 50명의 이름으로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死因 및 범인조작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단독 제출했다.

이같은 民主党측의 常委不参에 대해 民正党의 李총무는 「22일부터의 常委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일임한바있다」라고만밝혔다.

民主党은 이에앞서 이날오전 特別대표의원회의를 열어 이번 국회에서 朴군사건에 대한 국조권발동을 관철시켜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철되지않을 경우에는 국회상임위보이코트 또는 선거법협상 불참등을 포함한 강경대책을 결토키로했다.

이날 오후의 두차례 총무회담에서 李民正총무는 朴군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한뒤 미진하면 内務委에 진상조사小委를 구성해서 처리하는게 순서가 아니냐며 국조권발동문제는 그 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金民主총무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사건담당자이므로 국조권발동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의혹을 풀기위해 이번 국회회기내로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限時的인 국조권이라도 발동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兩党총무는 兩党인장을 조정, 계속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平民党은 国調権문제 등 모두 7개常委에만 참석키로했다.

平民党의 許京萬총무는 이날 오후의 民正平民 양당총무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李大淳民正총무는 「이번 국회에서는 KAL機만행사건을 다루기위한 外務委소집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회常委는 현안에 대한 국정논의의필요가 있다면 모두열어야한다」라고말했다.

平民党도 이날 오후 許京萬의원등 소속의원 28명및 무소속 2명의 이름으로 朴군사건조사를 위한 国調委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姜玟昌씨 구속연장

24일은 23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직무유기혐의등으로 구속된 姜玟昌전치안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됨에따라 구속기간을 1차연장, 이달말 姜전보부장을 기소하기로했다.

朴處源씨召喚보강수사 朴군死因 은폐조작

朴鍾哲군 사인은폐조작사건과 관련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을 구속한 대검중앙수사부는 28일 朴處源전치안본부5차장을 소환, 보강수사를 벌였다 87. 1. 29

朴處源씨 출두안해 신문抗訴공판 연기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범인도피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朴處源전치안감과 劉井邦 朴元澤 경정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9일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崔公雄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朴전치안감이 나오지 않아 오는 3월4일로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 劉·朴경정등은 나왔으나 朴전치안감은 건강상이유로 나오지않았다.

週刊朝鮮

朴鍾哲군 의문사 관련 기사 → 2쪽

「대책회의」란 무엇인가

1. 동아 2.

—그 은폐조작의 기능은 결연히 斷絶돼야 한다—

1988

社說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무엇인가. 朴鍾哲군 사건의 은폐조작과 정이 밝혀지면서 노출되었던 그 해괴한 이름이, 權一淑양에 대한 성고문 사건의 재정사청치랴과 함께 다시 떠오른다. 富川경찰서의 文貴顯전경장을 기소유예하고 사건의 진상을 숨겼던것도 그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정부조직의 어떤 근거법규나 도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책회의의 정체는 무엇이며, 도대체 무슨 목적과 기능을 위한 기구인가. 보도에 따르면 대책회의는 청와대와 안기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 목적과 기능은 아직도 불명확한 채 안개의 장막두에 가려져있는 형편이다.

물론 정부의 모든 회의나 기구가 법규에만 근거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 지휘체계의 폐쇄성을 벗어나, 관련기관의 수평적 연대와 대책의 통합성을 추구하기위해서는 법규에 없는회의나 기구의 활용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와 행정의 개방성을 살리는 길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회의나 기구는 당연한 문제의 해결을 숨김없이 파악하고, 그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논란되는 고문사건의 경우만을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 불법부당한 비인간적 참극의 재발을 막는 제도와 현실의 교정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대책회의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와곡하고 그 교정대책보다는 사회문제화를 막는 「대책」의 마련에만 부심했다면, 어떤 이유로도 공인될수 없는 회의이며 기구일 따름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대책회의를 「해괴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정체와 목적과 기능을 거듭 물을수 밖에 없다.

朴鍾哲군사건과 權一淑양사건을 둘러싼 은폐조작의 원천적책임이 대책회의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진상은 남김없이 파헤쳐져야 한다. 더구나 처녀의 치욕을 「性의 혁명도구화」로 매도했던 「공안당국」의 발표문이란것도 대책회의와 무관했던 것인지 추궁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두사건외에도 대책회의가 어떤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과 경찰등에 어떤 「外風」과 「外壓」을 가했는지가 밝혀져야한다.

그 음습하고 왜곡된 기구를 낳게 한 채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를 말할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독재조사기능과 검찰 기능등 가동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한 횡포를 척결해야만 비로소 민주화의 정상궤도는 열리게 된다. 젊은 목숨을 꺾고 처녀의 순결을 농락한 두 고문사건도 원천적으로 다스려지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과오가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보다 절실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어둠의 터널속에 갇혀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집약된다. 지난 날과 같은 대책회의가 존속되고 또한 그 목적과 기능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참으로 민주화를 노래할수 없다. 새 정부는 결연하게 버려야할 유산을 斷絶해야만 한다. 그 단절의 결단을 위해서도 대책회의의 정체는 거침없이 밝혀져야 한다.

拷問 다시 없게

1988. 2. 21 한국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이 우리기억에서 사라지지않고있는 요즘 여고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의해 조사를받던 明善烈군 (16)이 뇌사상태에 빠진지 37일만인 18일상오 끝내 숨지고말았다. 明군의 死因이 경찰의 가혹행위에서 연유됐다는데서, 그리고 비슷한 유의 희생자로서 明군이 첫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의 손찌검이 비록 본의가 아니었다해도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지른데 대해 가슴아픈 悔悟와 반성이 있어야하겠다.

청소년의 선도에는 어떤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으며 경찰의 집무 자세에 어떤 나태함도 용납될 수 없다. 그에 못지않게 反人權的인 가혹행위가 자라나는 한 젊은이를 致死케하는 行態역시 엄정한 斧斷으로 설정됐어야 하는 것이다.

明군의 경우 가족들의 뜻에 따라 심장판막, 안구등이 병원에 기증되어 그의 일신상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겐 새로운 삶을 안겨주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혹행위의 무서운 결과와 뜨거운 헌신의 再創造的 의미를 한꺼번에 느끼는 착잡함을 느낀다.

비록 그의 육신의 일부 이식수술이 값진 새삶을 빚어내게 되어 무슨일과도 견주기 어려운 美談의 꽃을 피우게했으되 그 바탕에는 누구도 다시는 되생각하고 싶지 않은 잔혹한 과오가 깔려 있음을 잊을수가없다.

인류가 그동안 거쳐 온 발자취에는 편견이나 잔혹성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오, 희생들이 점철돼 있고 그런 현상은 금세기 초반에 들어 와서야 비로소 人間 回復을 지향한 체계적 自省을 불러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런 自省에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를 따질수 없지만 시민생활의 보호, 사회 질서의 유지등을 본분으로 삼아 존립하고있는 경찰이 도리어 잔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비록 수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분을 느끼는것이다.

그동안 격무속에서 고의아니게 저질러졌다고는 해도 몇차례 되풀이됐던 유사한 과잉행위들이 실책으로서도 너무했다는 감을 줄만큼 빈번하지 않았느냐는 시민적인 문책은 당연하기때문이다.

경찰은 이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고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간곡히 바란다. 그리고 그런노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혹행위로 연결되지 않아야한다. 이번일을 계기로 사회분위기나 民主化 時代의 경찰집무 자세에 心機一轉이 있을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전기 2.8 총파업 결의 기념

전국 각지에서 대회 및 시위

전국 각지에서 2월 8일 총파업 결의 기념 대회 및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각 공장 앞에 모인 수천 명 노동자들은 "전국 총파업 만세!"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로 행진하였다. 대회 장소에는 수만 명 노동자가 모여 "8시간 노동 쟁취!" 깃발을 흔들었다. 대회 사회자 김 동지는 "이번 총파업은 전국 노동자 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여러 동지들이 차례로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를 떠나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회 및 시위

전국 각지에서 2월 8일 총파업 결의 기념 대회 및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각 공장 앞에 모인 수천 명 노동자들은 "전국 총파업 만세!"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로 행진하였다. 대회 장소에는 수만 명 노동자가 모여 "8시간 노동 쟁취!" 깃발을 흔들었다. 대회 사회자 김 동지는 "이번 총파업은 전국 노동자 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여러 동지들이 차례로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를 떠나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회 및 시위

전국 각지에서 2월 8일 총파업 결의 기념 대회 및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각 공장 앞에 모인 수천 명 노동자들은 "전국 총파업 만세!"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로 행진하였다. 대회 장소에는 수만 명 노동자가 모여 "8시간 노동 쟁취!" 깃발을 흔들었다. 대회 사회자 김 동지는 "이번 총파업은 전국 노동자 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여러 동지들이 차례로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를 떠나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회 및 시위

전국 각지에서 2월 8일 총파업 결의 기념 대회 및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각 공장 앞에 모인 수천 명 노동자들은 "전국 총파업 만세!"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로 행진하였다. 대회 장소에는 수만 명 노동자가 모여 "8시간 노동 쟁취!" 깃발을 흔들었다. 대회 사회자 김 동지는 "이번 총파업은 전국 노동자 단결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여러 동지들이 차례로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구호를 외치며 대회 장소를 떠나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위 행진 도중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였다.

◀시국토론회 참석한 재야인사들이 「민주화 공동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돈명 변호사, 김녕 변호사, 김상근 목사, 김수환 추기경, 김재준 목사, 김홍일 의원,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김중기 변호사, 김병곤 씨, 김정남 씨 등)

재야인사 시국토론 결의

「민주화 과제」 발표

1988. 2. 27 동아

朴鍾哲군 서울大학우들이 따로 수여식

〈지난달 숨진 서울대 박종철군의 명예졸업장을 받은 어머니 김정애씨가 아들 영정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니 아끼지 말고 돌려주라」

박종철군 어머니 김정애씨 눈물 흘리며 아들 영정 안고 명예졸업장 받아

「…그것은 소중한 것이니 아끼지 말고 돌려주라」

박종철군 어머니 김정애씨는 지난달 숨진 아들 종철군의 명예졸업장을 받아 아들 영정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씨는 이 졸업장을 아들 친구들이 따로 수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졸업장을 아들 친구들이 따로 수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朴處源 前치안감 축소조작등 否認

동아 88.3.5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 抗訴審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범인은폐조작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장 姜玟昌피고인(59·전치안감)등 3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4일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崔公雄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피고인들에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을 마쳤다.

朴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고문경찰관수를 축소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건발생직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보고해 당시 崔공안2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변사보고를 하는등 사건일체를 검찰의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姜玟昌 前치안본부장 검찰 "拷問致死은 폐관련 확실"

1審 첫公判서 이례적인 求刑

동아 88.3.5

朴鍾哲군 사건

고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은 폐조작기도사건과 관련, 직무유기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장 姜玟昌피고인(55)에게 1심첫공판에서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대검중앙수사부 姜信旭부장검사는 5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孫晋坤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첫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일기장과 검찰진술, 사건당시 치안본부장보속실 유대훈경감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은 朴군고문치사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인을 은폐조작하려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이 87년1월15일 밤 11시 반경 黃박사로부터 朴군의 사인을 보고 받아 가혹행위로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당뇨날호朴군장례식이고 심사숙고를 해야할 중대한 사건이라 조사를 늦췄다」는 것은 이유가 될수 없으며 朴군 사체가 화장됐다는 점을 생각할때는 오히려 장례전에 조사를 해관련자를 처벌했어야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1월15일 구속이후 50일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대검중수부2과장 姜부장검사의 직접신문과 변호인朴惠鍾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으나 姜전본부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姜전본부장은 검찰신문에서 『부검의사인 黃迪駿박사에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부검소견메모를 두차례나 고쳐서 작성하게 지시해 사인을 쇼크사로 조작하려한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姜전본부장은 또 『1월14일 발생한 사건에대해 3일이나 지나서 감찰조사를 지시한것은 사건을 보고 받은데서 오는 충격과 장례준비등으로 정신이 없어 늦춰진것이지 고문치사사실을 알고 범인수나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조사를 늦춘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姜전본부장이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자신의 지시로 부검의 黃박사가 작성, 본부장부속실경찰관이 정서한 부검소견서를 보여주었으나 姜전본부장은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법정에는 방청객 1백50여명이 나와 조용히 공판을 지켜봤으며 방청석앞 뜰에는 20여명의 교도관이 엄중한 경비를 했다.

姜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반경 구치감에 도착, 수갑을 차지 않은채 법정에 들어왔으며 재판이 계속되는동안 시종 굳은 표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신문에 몸짓을 해가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姜전본부장이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증인신문없이 공판에서 바로 구형을 한것은 이례적이다.

선고공판은 오는12일 오전10시.

동아 88.3.12

姜玟昌씨 (前治安본부장) 執猶선고

朴군拷問致死사건

서울地法 "剖檢醫 소견서 변경강요 등 有罪인정"

징역8월 자격정지1년…56일만에 釋放

姜玟昌 前치안본부장이 교도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선고를 받기위해 초조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朴鎭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사인조작은폐축소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姜玟昌전치안본부장(55)에게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孫晋坤부장판사)는 12일 姜전보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집행유예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수하의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해 자체조사를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건조사를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조사를 지시해 진상을 규명했어야한다』며 『사건발생후 조사에 최선을 다하지않고 부검의에게 의상이없는 소견서를 세차례에 걸쳐 바꿔쓰도록한 사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검의 黃迪駿박사에게 부검소견과 다르게 허위부검소견서를 작성토록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혀 姜전보부장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큰일을 당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조사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고 朴군부검때 한양대병원의사와 검사를 입회시킨점 등은 사건조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朴군사망사건의 사회적 정치적중요성을 감안할때 피고인이 첫조사에서 진상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정부는 이사건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으리라고 본다』며 『피고인이 성불리 믿기어려운 부하의 보고에 연연해 조사를 제대로하지 않은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과오는 치안과 對共정책유지에 펼쳐한신해온 피고인스스로를 법정에 세우는 아픔이 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것은 피고인의 공로를 가벼이 볼수 없기 때문이며 재판에서 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큰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姜전보부장은 재판부가 선고이유를 설명해 나가는동안 머리를 약간 숙인채 묵묵히 듣고있었으며 선고순간에도 얼굴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사복차림의 경찰가족등 방청객 1백50여명이 방청석을 꽉 메웠으며 10여분만에 재판은 끝났다.

姜전보부장은 부검의 黃迪駿박사의 일기장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1월16일 전

李相洙 변호사 業務재개 허용

서울高法특별부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金聖一부장판사)는 11일 李相洙변호사가 낸 변호사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李변호사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날까로 법무부에 변호사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姜玟昌씨 항소

朴군拷問致死사건 1년

3. 朴鎭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사인조작은폐와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姜玟昌전치안본부장(55)에게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1년이다.

지난 12일 석방된 姜玟昌전치안본부장(55)은 17일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姜전치안본부장이 항소함에 따라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동아 88.3.12

파문 극소화 「高速재판」

朴군사건 姜前치안본부장 宣告의미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관련, 사건발생1년만에 구속됐던 姜玟昌전치안본부장이 12일 1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사건발생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던졌던 朴군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前치안총수를 포함, 9명의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던 이 사건은 결국 趙漢慶경위등 고문에 직접가담한경찰관 5명에게만 체형의 응징을 가하는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

그러나 수사—재수사—재재수사를 거치면서도 진상의 전말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았던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도 고문치사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가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적 처리도 미흡하게된것같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논란과 시비의 공방이 예상됐던 재판이 초스피드로 진행돼 1회공판에서 사실심리와 구형, 2회공판에서 선고까지 끝냈다.

이같은 신속한 재판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파문을 극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다.

姜전본부장의 朴군사인은폐조작기도사건은 본인이 법행을 완강히 부인, 복잡 미묘한 재판의 진행이 예상됐으나 검찰이나 변호인측이 예상밖으로 법정에서의 시시비비를 적정선에서 주장하는것으로 끝내 증인신문없이 사실심리를 종결했다.

지난5일 첫공판에서 검찰은 姜전본부장에게 20여가지의 「의례적」인 질문만 던졌고 변호인은 몇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한 뒤 피고인의무죄주장을 입증키위한 적극적 노력을 포기한채 탄원서를 제출, 심리종결에 동의함으로써 1시간반만에 모든재판절차를 끝냈다.

「신속히 적당한 선에서」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속전속결 적당주의」가 검찰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

4~5차례 공판을거쳐 1심을 끝냈던 고문경찰관이나 삼급자들에 대한 재판도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사이의 법정공방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은 아니었다.

재야단체의 폭로와 여론의 끈질긴 추적속에 검찰이 「재(再)수사」「재재(再再)수사」를 거듭했으면서 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영향을 미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시국사건피고인들의 고문주장을 외면했던 사법부 역시 고문치사사건이란 충격적 현실앞에서조차 적극적인 재판의 주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 재판부들은 수사기관고문원들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등 가혹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고문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한 직무를 공적으로 돌며 잔혹한 정상들을 펴는 관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朴군고문치사사건에 관한 검찰수사나 재판과정 모두가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완전히 씻어주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같다는 한 재야법조인의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

<姜承求기자>

朴鍾哲군 拷問치사사건 日誌

▲87년 1월14일=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 발생.
▲1월15일=姜玟昌치안본부장, 조사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朴군이 「억」하며 숨졌다고 발표.
▲1월17일=치안본부특수대 수사착수.
▲1월19일=趙漢慶 姜鎭圭등 고문경찰관 2명구속.
▲5월21일=검찰, 고문경찰관 黃正雄 潘金坤 李正鎬등 3명 추가구속.
▲5월29일=검찰, 朴處源치안감 劉井邦 朴元澤경정등 범인은폐축소조작모의 경찰간부 3명 추가구속. 姜전본부장은 「가담혐의 없다」고 발표.
▲9월21일=朴치안감등 축소조작모의 경찰관 3명 모두가 집행유예로 석방.
▲10월19일=趙漢慶등 고문경찰관 5명, 항소심서 징역10년에서 3년을 선고받음.
▲88년1월12일=부검의 黃迪駿박사 일기장 공개.
▲1월14일=검찰, 姜전본부장 黃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尹重鎭소장등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
▲1월16일=검찰, 姜전본부장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
▲2월23일=대법원, 趙漢慶등 고문경찰관 5명 원심확정.
▲3월5일=검찰, 姜전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관계기관 對策會議」등 眞相안밝혀져

姜玟昌씨 판결문요지

◇법률론=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무부산하기구이나 사실상 치안본부장이 지시를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점으로 비추어볼때 부검의 黃迪駿박사에게 3차례에 걸쳐 외상(外傷)이 없는것으로 부검소견서를 고쳐 작성하게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 경무관이하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이 있는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돼있지만 치안본부장은 수사권이 있는 부하들을 관리 지휘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당시 고문치사의 진상을 밝혀내는것은 치안본부장의 직무에해당한다.

姜피고인이 지난해 1월15일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16일 朴군 장례식때문에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것을 피하고 그날 오후 검찰 최고수뇌를 만나 자체수사를 하겠다고 밝힌뒤 17일 조사에 착수한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그러나 黃박사의 진술과 일기장내용, 세번에 걸쳐 외상없는 소견서를 작성하게한 점, 또 姜피고인과 경찰간부들이 사인을 심장 쇼크死로 해줄것을 요구한점등은 직무유기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인 이유가 된다.

특히 조사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朴군이 「억」하고 숨졌다는 상식에 어긋난 발표를 하고 30~40시간동안이나 수사나 조사를 늦춘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전살론=우리 국민과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파문을 준 朴군 고문치사사건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 인권사에 있어 한 분기점이 됐다고 할수 있다.

정부와 경찰에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경찰사기를 저하시키는등 일파만파(一波萬波)를 일으킨 이 사건의 초동수사단계에서 경찰 최고수뇌인 피고인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혔더라면 의지가 없었다는점은 아쉽다. 고된 사인에 연연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이 법정에서 게된것은 피고인의 인생에서 어엽첩난 비극과 아픔이 됐다고 본다. 모든 사물이나 역사적 사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치우쳐 보아서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평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의 과오가 크지만 전인격적으로 실패볼때 30여년간 경찰생활을 하며 훈장과 표창을 받는등 치안대공질서유지에 공이 적지않았음을 참작하지않을수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재판에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사법권 독립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압력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심현선고는 하지 아니했다.

孫晋坤 劉承政 吳承鍾

姜玟昌씨 執猶 석방

3.13선 조서울地法 "有罪 인정하나 功績 참작"

朴군 致死사건

朴鍾哲군 사인 은폐조작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姜玟昌 전 치안본부장(55)에게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孫晋坤부장판사)는 12일 姜 전치안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모두 인정했으나 과거의 공적 등을 들어 이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날오후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안총수로서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담시 고문치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치안본부장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조사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삼식에 어긋난 발표를 하고 30~40시간이나 조사를 늦춘 것은 사건발생 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부검의사 黃迪駿박사의 진술등을 토대로 할때 세번에 걸쳐 외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작성하게 한점-사인을 심장쇼크로 해줄것을 요구한 점 등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인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朴군 사건은 경찰조직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절부와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커다란 사건으로, 결국 피고인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가와 민족-대공의 차원에서 헌신해왔던 피고인을 법정에서게했다』며 『피고인이 초등단계에서 상식적으로 믿기어려운 「심장 쇼크사」라는 첫 보고에 연연하지않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지시를 내렸다면 朴군 사건의 여파는 크게 줄어들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형량과 관련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건은 부정적이고 임방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전체적으로 평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 『피고인의 과오가 크지만 실형을 선고하지않은것은 30여년간 경찰생활을 하며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는등 치안과 대공질서유지에 공이 적지않은데다, 여론으로부터의 재판의 독립도 큰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姜전치안본부장은 재판부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머리를 약간 숙인채 묵묵히 듣고있었으며, 선고순간에도 얼굴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재판정에는 사복차림의 경찰간부등 1백50여명이 방청석을 메웠고, 재판은 판결문 낭독만으로 10여분만에 끝났다.

姜전치안본부장은 부검의인 黃박사가 진단서작성담시의 일기장을 공개, 진상은폐에대한 사회적비판이 제기되자 1월16일 전격구속돼 2월1일 기소됐으며, 지난4일 1회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姜씨의 이날 석방은 구속56일만이다.

한편 姜전치안본부장의 변호인인 朴惠建변호사와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할뜻을 비쳤다.